HanPAC View

Hanguk Performing Arts Center Magazine **HanPAC View** http://www.hanpac.or.kr 한국공연예술센터



2011.02

아니, 잘못 봤어 그보다 몇 년 뒤야
물 없는 우물에 빠져 소리지르고 울 때야
저기 봐, 또 저기
가로등 위로 풀빵을 사든 내가 지나가잖아
할아버지 몰래 금고에서 동전을 꺼냈어
저 발 아래 물웅덩이엔
내 무릎 사이로 발가벗은 귀여운 내가 기어오네
쭈쭈 아가 이리 온, 맛있는 젖 먹여줄게
일흔 살의 내가 마흔인 나를
위로하느라 가로수 사이 불어제치네
흰 머리칼 다 풀어지고 이마엔 땀이 맺혔어
내 몸에서 나온 나의 할머니들과
나의 딸들이 달로 뜨고 별로 뜨고
나뭇잎 잎잎마다 바람으로 불어제쳤어

한 밤 내 내 나 는 나 에 게 서 불 을 쬐 고 앉 아 있 었 다
그 중 에 서 도 어 머 니 에 게 안 겨 젖 빠 는
가 장 어 린 나 에 게 서 오 오 래 불 을 쬐 었 다
일 흔 살 먹 은 나 의 껍 질 뿐 인 젖 무 덤 을 더 듬 기 도 했 다
보 름 달 아 래 겨 울 가 출 이 아 주 따 뜻 했 다
식 어 가 는 화 로 하 나 껴 안 은 것 처 럼

시_ 김혜순 시집「불쌍한 사랑 기계 / 문학과 지성사 / 1997」

Contents

한국공연예술센터는 공연예술 최고의 중심,
최상의 관객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뛰어난 예술성의 공연작품,
고객과 함께 호흡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공연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PreView

04 2월 공연일정 Program Schedule /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06 연극 / 마당을 나온 암탉 a Hen | 극단 민들레 Theatre Company MINDEULLE
08 연극 / 아름다운 인연 A lovely knot | 극단 배우세상 Baewoosesang theater
10 연극 / 조용한 식탁 Table Calme | 극단 뿌리 PURI
12 연극 / 처음처럼 Like the First time | 극단 골목길 Theater company Alleyway
14 연극 / 민들레 바람되어 Say It Again My Dandelion | 연극열전 Thebestplay Inc.
16 연극 / 칼로막베스 Killbeth | 극공작소 마방진 Play Factory Mabangzen
18 무용 / 이혜경의 박 Bak of Lee Hae Kyung | 이혜경&이즈음무용단 Lee Hae Kyung & ISUM Dance Company
20 무용 / 코뿔소 Rhinoceros | 이태상 D.T.1 LEE Tae-sang D.T.1
22 무용 / 김복희무대만들기 40주년-레파토리 공연 The Stage for celebrating 40th anniversary of Kimbochee dance company | 김복희 무용단 Kimbochee dance company

ReView

26 무용 / 온 더 무브 On the Move | 한국공연예술센터 Hanguk Performing Arts Center | 이동우
30 무용 / 무엇을 바라보는가? What are you looking at? | 원댄스프로젝트그룹 One Dance Project Group | 심정민
32 연극 / 휘가로의 결혼 Le Mariage De Figaro | 극단실험극장 Shilhum Theater Group | 김형기
34 연극 / 미친극 Crazy drama | 극단백수광부 theater company baeksukwangbu | 김숙현

제호 한팩 뷰 HanPAC View | **간행** 월간
발행처 한국공연예술센터
발행인 최치림
편집인 황금실
내부편집위원 김자은, 조용주, 이효정, 이한규
디자인 · 인쇄 (주)윤일문화

표지이미지
이혜경&이즈음무용단 〈박〉 공연사진



Focus

36 축제와 극장 이야기 Performing Arts Festival and Theater / 아르코예술극장과 축제–무용편 | 김승현

42 백스테이지 스토리 Backstage Story / 한팩 공연지원부 | 음향실

Information

48 책 소개 Book Review / 이진순 평전

50 2011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국내 작품 공모 Annoncement for SPAF 2011 programs

52 문화나눔 안내 Waiting for Arts Seed

Essay

54 Expressions of Gratitude / 큰사랑 감사합니다

56 카툰에세이 Cartoons / 한팩과 함께 천천히 사는 사람들



온 더 무브



마당을 나온 암탉



휘가로의 결혼

2011. 2 공연일정 Program Schedule

DATE	1 화	2 수	3 목	4 금	5 토	6 일	7 월	8 화	9 수	10 목	11 금	12 토	13 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1 이혜경의 박 Bak of Lee Hae Kyung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1 민들레 바람되어 Say It Again My Dandelion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3 칼로막베스 Killbeth									4 마당을 나온 암탉 a Hen			
대학로예술극장 **3관**	5 처음처럼 Like the First time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1 **이혜경의 박** | 이혜경&이즈음 무용단
2월 12일 ~ 13일
토 일 4:00pm

2 **김복희무대만들기 40주년 레퍼토리 공연** | 김복희 무용단
2월 16일 ~ 20일
수 금 8:00pm / 일 4:00pm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3 **아름다운 인연** | 극단 배우세상
2월16일 ~ 28일
평일 8:00pm / 토 4:00pm 7:00pm / 일 4:00pm





14 월	15 화	16 수	17 목	18 금	19 토	20 일	21 월	22 화	23 수	24 목	25 금	26 토	27 일	28 월	1 화	2 수	3 목	
		2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김복희무대만들기 40주년 레퍼토리 공연 The Stage for celebrating 40th anniversary of Kimbochee dance company																
		3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아름다운 인연 A lovely knot																
											2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코뿔소 Rhinoceros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6																	대학로예술극장 **3관**
	조용한 식탁 Table Calme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1 **민들레 바람되어** | 연극열전
1월 21일 ~ 2월 22일
화 수 8:00pm / 목 11:00am / 금 4:00pm, 8:00pm / 토 3:00pm 6:00pm / 일 4:00pm

2 **코뿔소** | 이태상 D.T.1
2월 25일 ~ 26일
금 8:00pm / 토 6:00pm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3 **칼로막베스** | 극공작소 마방진
1월 20일 ~ 2월 6일
평일 8:00pm / 토 일 공휴일 4:00pm

4 **마당을 나온 암탉** | 극단 민들레
2월 10일 ~ 27일
화 목 2:00pm / 금 토 2:00pm 4:00pm / 일 2:00pm

대학로예술극장 3관

5 **처음처럼** | 제1회 대학로코미디페스티벌 | 극단 골목길
1월 27일 ~ 2월 6일
화 목 금 8:00pm / 수 3:00pm 8:00pm / 토 3:00pm 7:00pm / 일 3:00pm

6 **조용한 식탁** | 극단 뿌리
2월 15일 ~ 27일
평일 8:00pm / 토 3:00pm 6:00pm / 일 4:00pm



연극으로 만나는 또 다른 감동

마당을 나온 암탉 a Hen

'마당을 나온 암탉!' 이 책에서 나와 무대로 올라갑니다.
속 물건들에 배우의 혼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상상놀이터가 펼쳐집니다.









단체 극단 민들레
원작 황 선 미
연출 송 인 현 Song In Hyun
출연 이경성, 박정용, 송인현, 윤태민, 민지숙

공연개요

공연시간 :	2월 10일(목) ~ 27일(일)
	화 ~ 목 2:00pm / 금 ~ 토 2:00pm , 4:00pm / 일 2:00pm /
	월요일 쉼, 단체예약(100명 이상)시 추가공연할 수 있음.
공연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관람료 : 전석 17,000원 / 3인 가족권 35,000원 /
	단체(20명 이상) 10,000원 /
	민들레 · 사계절회원 20%할인 13,600원 /
	장애인, 국가유공자 50% 할인 / 중복할인 불가
소요시간 :	60분 (인터미션 무)
관람연령 :	9세 이상
공연문의 :	극단 민들레 02-3663-6652
공연주최 :	한국공연예술센터, 극단 민들레

+ **작품설명** 100만부 넘게 판매된 동화책으로 잘 알려진 황선미 원작의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형식으로 새롭게 만들었다. 물체마임극, 뮤지컬, 창극, 테이블 연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들을 갖고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물체마임극?이라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책상이 무대가 되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이 배우의 연기를 통해 생명을 얻는다. 특히 이야기꾼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감상할 수 있고, 빠른 진행을 하면서도 극의 밀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관객들은 일상생활 소품을 활용한 물체극, 오브제극이라는 형식을 통해 책을 읽을 때보다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된다.

+ **연출의도**

연극성이 살아있는 무대

테이블 위 물건들이 배우를 통해 닭이나 오리 등의 인물이 되는 인형극 형식을 빌리지만 배우의 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극단 민들레만의 연극양식을 통해 완성한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건을 활용해 닭이나 오리를 연기함으로써, 관객들은 상상을 통해 연극을 완성한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무대

큰 것만을 지향하는 요즘, 무대를 작게 꾸민다. 배우들이 소품을 사용하여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객석도 줄여서 밀도를 높인다. 이것은 관객이 상상력을 발휘하고 밀도를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 **기획의도** 연극 〈마당을 나온 암탉〉은 황선미(Hwang sun-me)의 동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100만부가 넘게 출판된 원작의 감동을 무대에 옮겨왔다. 인형극 형식을 빌리지만 배우의 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민들레만의 연극양식을 통해 완성한다. 즉 테이블 위 소품들을 가지고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물체마임극'의 형식을 취한다. 책상이 무대가 되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이 배우의 연기를 통해 닭이나 오리 등 인물이 되며 생명을 얻는다. 관객들은 어떤 경우보다 많은 상상을 하게 되며, 그 상상을 통해 비로소 연극이 완성된다. 이야기꾼을 통해 빠른 진행을 하면서도 극의 밀도를 유지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감상할 수 있다.



+ 시놉시스 SYNOPSIS

"우리는 소망을 꿈꾸고 그 꿈을 이루어 갈 것이다!"

양계장에서 알만 낳는 잎싹(Leafie)은 '알을 품어 병아리를 보고 싶은' 소망을 품는다. 잎싹은 양계장에서 버려지지만 거친 들판에서 알을 품는다. 드디어 알이 깨어 아기의 탄생을 본다. 그래서 첫 번째 소망을 이루고... 아기는 커서 초록머리(Greenie)가 되고, 초록머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잎싹은 날고 싶다는 소망을 갖는다. 초록머리를 위해 족제비의 먹이가 되면서 잎싹은 자신이 나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또 다른 소망을 이룬다.

+ 극단소개 THEATRE COMPANY

극단 민들레 Theatre Company MINDEULLE

극단 민들레는 전통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을 공연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 청소년들이 전통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하면서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게 해주고 나아가서는 우리만의 독창적인생각을 이끌어낼 기초를 다지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현재 창의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이 21세기 교육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데, 창의적인 인간은 자신의 확고한 생각의 틀을 바탕으로 한 상상과 경험,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한 바탕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의견 아래서 다양한 어린이 창작극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Baewoosesang the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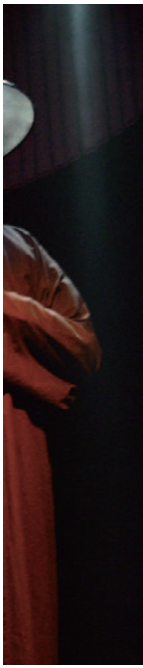
아름다운 인연 A lovely knot

우리의 머리 속에 뿌리내린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통렬한 풍자!
A biting satire on the notion of preferring a son(to a daughter) which is deeply rooted in our minds.

막힌 곳을 뚫어주는 듯한 시원한 입담!
The eloquent talking skill that can scratch an itchy spot.

이연극을 보면 한국의 샤머니즘에 대해 더 잘 이해하실수 있으실 겁니다.
I'm sure that you'll be able to understand about Korean shamanism better after you watch this play.









극본 선 욱 현 Sun Uk Hyeon
연출 강 영 걸 Kang Yeong Geol
제작 김 갑 수 kim Kap Soo
출연 김갑수, 김재건, 원미원, 이태훈, 현금숙, 최영인, 김아리 外 배우세상 단원

공연개요

공연시간 : 2월 16일(수) ~ 28일(월)
평일 8:00pm / 토 4:00pm, 7:00pm / 일 4:00pm (쉬는 날 없음)
공연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관람연령 : 10세 이상
러닝타임 : 90분
관 람 료 : 전석 25,000원
공연문의 : 극단 배우세상 02-743-2274

공연주최 : 극단 배우세상

+ **기획의도** 아름다운 인연〉은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굿판을 통해 신명나게 풀어보고자 하는 공연이다. 우화 같은 시화를 연극으로 이끌어 낸 작가 선욱현과 극단 배우세상과의 우연 같은 인연도, 불가의 말을 인용한다면 억겁의 연원들이 있을 것이다. 이번 공연이 계기가 되어 우리와 서양 문화형식의 공통분모를 공유하고자 한다.

+ **작품설명** 이 연극은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남호선호사상과 낙태'를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내며 결국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말하고 있다. 특히 강영걸 연출의 장점인 '한국어의 말과 멋', '한국인의 몸짓'등을 홍장군(김갑수)의 신명나는 한판 굿놀이를 통해 보여주며, 김덕수 사물놀이 패거리의 음악도 이에 합세한다. 소극장 공연임에도 약 30명의 배우들이 참가하여 다채롭고 탄탄한 연기를 무대와 객석을 오가며 펼친다. 무엇보다 시종일관 관객과 어울리며 연거푸 쏘아대는 홍장군의 걸쭉한 입담은 공연을 웃음과 울음의 난장판으로 만든다.





+ 시놉시스 SYNOPSIS

'황씨 가문 8대독자, 황수남의 아들 낳기 좌충우돌 신명한판! 미연이를 잡기위한 신과 박수무당 홍장군의 코믹 쟁탈전!!'

황 씨 가문의 팔대독자 황수남. 서른살 나이에 딸만 내리 다섯. 그런데도 아들을 봐야겠다는 극성스런 수남의 모친은 산부인과에서 이상한 일을 접한다. 딸을 낳으면 멀쩡한데 아들을 낳는 산모들은 중태에다가 무조건 사내아이만 죽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모친은 박수무당인 홍장군을 찾아가 사연을 전해 듣는데, 이는 바로 미연이라는 낙태귀의 소행! 미연은 간신히 얻은 인간의 생을 딸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던 한 많은 귀신이었다. 결국 삼신할매와 염라국 저승사자까지 인간세상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 극단소개 THEATRE COMPANY

극단 배우세상 Baewoosesang theater

극단 배우세상은 배우 중심의 연극을 표방하는 단체다. 배우세상은 배우의 역할을 재고하고자한다. 때문에 극작가가 작품을 쓰고 연출가가 작품을 해석하면, 배우가 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역할이 아니라 연극 창조에 적극 동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연작품은 창작극을 중심으로 하되 기존의 작품은 새롭게 해석하여 공연하고, 관객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연극을 지향한다.

조용한 식탁

Table Calme

말 못할 상황을 지켜보는, 숨 막히는 드라마의 시작
누구도 침묵하지 않지만 입 밖으로 꺼내어 볼 수도 없는 진실

작 한 윤 섭 Han Yoon Sub
연출 김 도 훈 Kim Do Hun
출연 한 기 중 Han Gi Joong,
박 리 디 아 Park Lydia,
민 준 호 Jun H. Min



공연개요





공연시간 : 2월 15일(화) ~ 27일(일)
평일 8:00pm / 토 3:00pm, 6:00pm / 일 4:00pm
공연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3관
공연문의 : 070-8739-3270 모슈컴퍼니 Moshu Company

공연주최 : 극단 뿌리 Puri



+ 기획의도 〈조용한 식탁〉은 일반적으로 관객이 기대할 수 있는 연극이 아니기를 바라며 희곡을 썼다. 그래서 배우의 연기도 일반적일 수 없다.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극도로 긴장되어 있는 무대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된다. 배우들의 움직임은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로써 심리상태를 전달한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사건이 주는 긴장감을 관객과 끝까지 유지시킨다. 연극은 끝내 아무것도 발설하지 않은 채 끝난다.

+ 연출의도 어쩌면 아주 새로울 수도 있고, 어쩌면 아주 지루해질 수 있는 연극을 어떻게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90분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연출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관객이 무대에서 전해지는 의미들을 정확히 받아낼 수 있도록 희곡을 무대로 옮기는 것이 연출의 몫이다.

+ 시놉시스 SYNOPSIS

15년 전,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아내와 엄마를 잃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외로움을 삭히는 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술에 취해 거리의 여자를 찾아가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고등학생인 아들은 우연히 아버지의 뒤를 미행하게 된다. 그리고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다. 아버지는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식사를 시작한다.

+ 극단소개 THEATRE COMPANY

극단 뿌리 PURI

1976년 창단 이후 다양한 창작극과 외국의 우수작품들을 공연하였다. 대표 연출가 김도훈의 예술적 열정을 바탕으로 지난 35년간 〈달집〉, 〈황진이〉, 〈밤의 묵시록〉, 〈유랑극단〉, 〈그 섬에 신이 살지 않는다〉 등 창작극과 번역극 〈가스펠〉, 〈부도덕한 행위로 체포된 어느 여인의 증언〉, 〈고독이라는 이름의 여인〉, 〈겨울에서 가을까지〉 등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그 중 많은 작품이 관객과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뿌리의 대표 레퍼토리인 〈가스펠〉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이다.

제1회 대학로코미디페스티벌

처음처럼 Like the First time

못된 사나이의 파란만장 좌충우돌

"아가야 너무 기죽지 말고 그 안에서든 어디서든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어.
남들이 뭐래도 신경쓰지 말고 처음처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단체 극단 골목길

극본 · 연출 박 근 형

출연 김도균, 김주완, 이호열, 김주헌, 박미녀나, 최은선

공연개요





공연기간 :	2011년 1월 27일(목) ~ 2월 6일(일)
	화 목 금 8:00pm / 수 3:00pm, 8:00pm / 토 3:00pm, 7:00pm /
	일 3:00pm (월요일 공연 없음, 2월 3일 공연 없음)
공연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3관
관람연령 :	만 7세 이상
러닝타임 :	85분
공연문의 :	02-3668-0007, 3668-0051
공연예매 :	HanPac 홈페이지, 02-3668-0029
	인터파크 1544-1555, 사랑티켓 02-762-4242
관 람 료 :	일반 20,000원 / 학생(대학원생 까지) 15,000원
	단체할인(20인 이상) 10,000원
공연주최 :	한국공연예술센터, 극단 골목길





+ 작품설명 평생을 못되게 살아온 한 남자가 있다. 그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출소 후 바로 찾아간 곳은 고향집.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내는 집을 나간 지 오래다. 남자는 지나온 세월을 반성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 그런데 거미줄 쳐진 방구석 저쪽...

부모님의 유서 한통이 놓여있다. 유서의 내용인 즉, "아들아! 처음처럼, 못되게 지독하게 살아다오. 그래야 우리가 죽더라고 니 걱정을 덜고 구천을 떠날 수 있으니..." 아들은 결심했다. 못되게 아주 못되게 누구처럼 평생을 살기로.....

+ 시놉시스 SYNOPSIS

아득한 옛날 이 땅에 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우애가 좋고 더 없이 사이가 좋았으나 어느 날부터 앙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설날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형제의 부모는 자식들에게 설빔을 사다주었죠. 그러나 형제는 자기 옷에 만족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옷이 더 마음에 든다 여기고 싸우다 결국 옷은 찢어지고 그들은 그 일로 하여 평생 앙숙이 되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의 화목을 바라는 마음으로 유서를 쓰고 세상을 하직했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죽음조차 상대방의 탓이라 여기고 그날부터 계속 원수처럼 서로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말로 싸우기 시작했으나 점차 폭력적이 되고 서로의 가족을 해하는 살인까지 서슴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극단소개 THEATRE COMPANY

극단 골목길 Alleyway

골목길은 고향이다.
어린 시절 동무들, 남루한 일상의 흔적, 담벼락에 새겨진 낙서,
누군가 부르는 노랫가락…
그곳에서 우리들은 인생을 배우고 추억을 새겼다.
골목길은 생명이다.
뒷골목에서 벗어나고자 애써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이
그곳을 그리워하며 다시 찾는 곳이다.
극단 골목길은 2003년, 연출가 박근형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배우들이 한데 뭉쳐 만든 극단이다.
어둑할 무렵 차양을 들추고 들어간 골목길의 어느 선술집처럼
극단 골목길은 극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향수와 잃어버린 정서를 되찾아 주려 한다.
길 한복판에서의 이유모를 헛헛함보다는
골목길에서의 편안함을 그리워하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 골목길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슴 찡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 축하인사 GREETINGS

2010 제1회
대학로
코미디페스티벌

+ 축사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일상생활에서 해학을 매우 즐겼다. 해학은 우리들의 삶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마음의 여유이기도 했으며, 일상에 지치고 경직되었던 우리 서민의 마음을 일순간에 풀어주고 고단한 삶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근대 이후 어려운 국제 정세와 국가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번 대학로코미디페스티벌이 앞장서서 웃음과 여유를 되찾아 주고, 최근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 위상 강화를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해학을 체현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

– **유인촌** 문화부 장관

+ 축사 국내외 엄선된 7편의 명작 희극을 한 무대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축제, 명작 희극의 정수를 한껏 느낄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
연극의 제 역할이 무엇인가를 되묻게 되는 시절이다.
갈수록 각박해지고,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시대에 연극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때, "극장이 웃는다"라는 슬로건처럼, 2010년 우리의 삶에 지친 사람들이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축제, 유머와 위트와 재미가 있는 명작 코미디로 침체된 대학로 연극의 활성화를 꾀하는 의미 있는 축제로 거듭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박계배**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 인사말 코미디는 밝고 건강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불어넣어주는 장르이며 이는 이 시대에서 가장 요구되는 국민정서에 부합한다고 믿는다.
희극 작품들만으로 페스티벌을 차리게 된 데에는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나 몇 가지만 꼽자면 우선 일반 관객들이 가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연극 잔치를 통해서 연극의 대중화 시대를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고 둘째 성공적인 코미디 작품에는 굳이 지명도를 앞세운 스타급 연기자를 기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며 셋째 민간 극단들의 제작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들을 꼽을 수 있겠다.

– **정진수** 코미디페스티벌 총감

연극열전 앵콜

민들레 바람되어

Thebestplay Encore 〈Say It Again My Dandelion〉

이 세상 모든 부부들에게 바치는 가슴 뜨거운 러브스토리
전국 10만 관객이 사랑한 창작연극 앵콜 〈민들레 바람되어〉!

단체 (주)연극열전
원작 박 춘 근 Park Choon Keun
연출 김 낙 형 Kim Nak Hyung
출연 정보석 / 조재현, 이한위 / 김상규, 김성미, 황영희 / 이지현 外

공연개요




공연기간 : 2011년 1월 21일(금) ~ 2월 22일(화)
화~수 8:00pm / 목 11:00am, 금 4:00pm, 8:00pm /
토 3:00pm, 6:00pm / 일 4:00pm (월요일은 쉼)

공연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관람연령 : 12세 이상

러닝타임 : 90분

공연문의 : ㈜연극열전 02-766-6007 www.thebestplay.co.kr

공연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연극열전 02-766-6007
www.hanpac.or.kr 02-3668-0007

관 람 료 : R석 50,000원 / 민들레석 45,000원
S석 40,000원 / A석 30,000원

공연주최 : ㈜연극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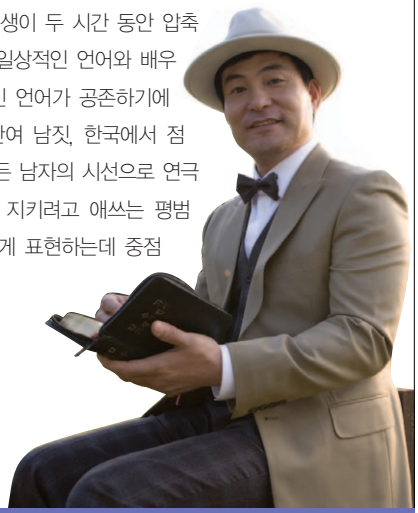


+ **기획의도** 연극 〈민들레 바람되어〉는 평범한 한 남자의 일생을 통한 삶과 사랑, 그리고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이 시대 부부들이 공감할 만한 보편적인 이야기로 풀어낸다.

2008년 〈연극열전2〉 마지막 작품으로 초연, 창작연극으로는 이례적으로 전회 매진, 객석점유율 115%를 기록하며 전국 10만 관객에게 사랑 받은 작품이다. 2011년의 앵콜 공연은 초연의 감동을 증폭시킬 캐스팅을 구성하였다. 남편 Ahn chung ke 역에 Cho jae hyun과 Jung bo suck이 열연을 펼칠 예정이며, 노인 역에는 초연의 Kim sang kyu와 더불어 Lee han wi가 더블케스팅 됨으로써 관객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 **연출의도** 연출은 자칫 진부할 수 있는 소재이지만 오히려 많은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판단하에 더욱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한 관객 중심의 방향을 잡았다. 한 남자의 인생이 두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표현되는 이 작품은 일상적인 언어와 배우의 색깔이 묻어나는 연극적인 언어가 공존하기에 보는 재미를 더한다. 두 시간여 남짓, 한국에서 점점 소외되어가고 있는 나이 든 남자의 시선으로 연극이 구성되며, 사랑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쓰는 평범한 남자의 모습을 사실감 있게 표현하는데 중점을 뒀다.



+ 시놉시스 SYNOPSIS

해를 거듭하며 나이가 들어가는 남편과 민들레 꽃을 좋아하는 소녀 같은 감수성을 지닌 채 젊은 모습을 간직한 아내. 둘의 엇갈린 대화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각자가 간직해 온 비밀, 오해 그리고 사랑. 그러던 어느 해, 한 평생 애증으로 살아온 노부부가 무덤가에 새로이 들어오고 남편과 아내는 그들을 보며 많이 늦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를 나누는데...

+ 극단소개 THEATRE COMPANY

극단 연극열전 Thebestplay Inc

대학로 대표적 민간 문화공간인 동숭아트센터가 공연장 본래 기능 회복과 한국 연극 활성화를 위해 2004년 개최함으로써 시작된 '연극열전' 프로젝트의 성과를 바탕을 두고서, 그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2007년 11월 설립된 전문 법인이다. 프로젝트 '연극열전'은 공연의 질적인 완성도를 신뢰할 수 있는 공연브랜드로서 자리를 굳혔으며, 연극관객의 저변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2010 동아연극상 작품상 수상

칼로막베스 Killbeth

셰익스피어의 맥베드를 원작으로 한 무협 액션극
Heroic action-drama, based on William Shakespeare's "Macbe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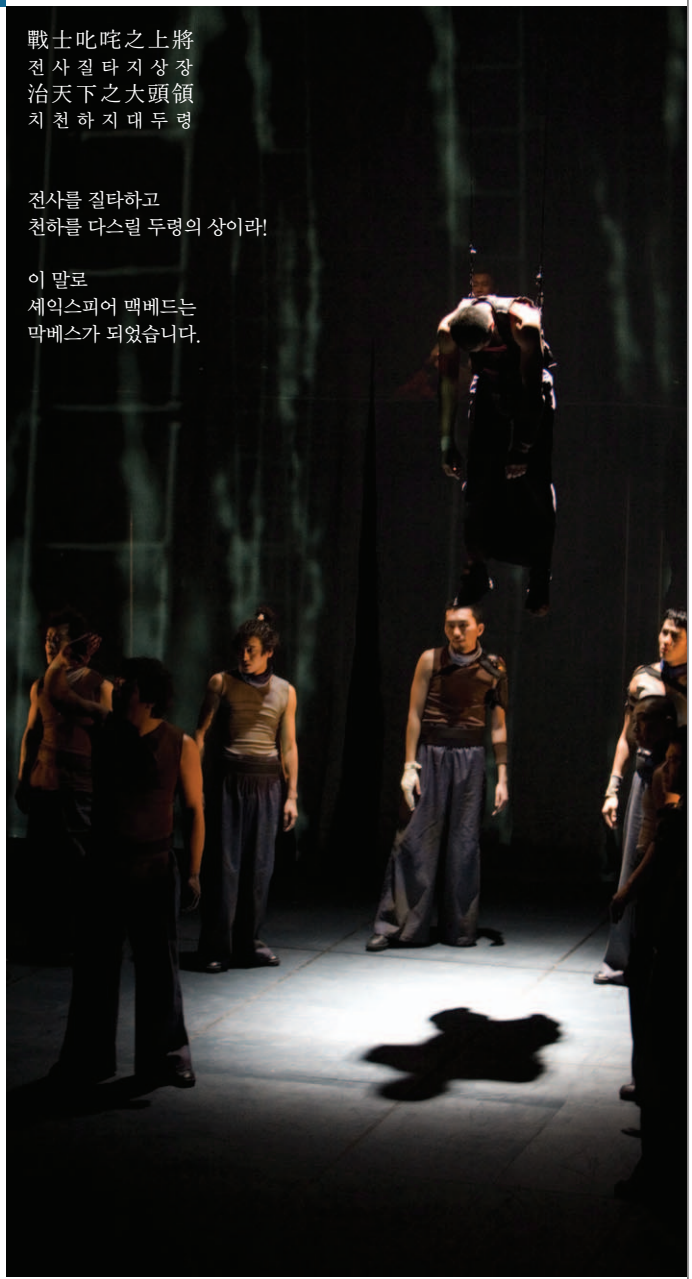
유머와 느와르로 포장한 진지한 비극성
A true tragedy wrapped in humor and elements of film noir

각색 · 연출 고 선 웅 Adapted and Directed by Koh Sunwoong
원작 윌리엄 셰익스피어 Original work : William Shakespeare
스탭 무술감독 : 이국호, 한지빈 / 무대디자인 : 김충신 / 미술감독 : 김원태 / 기획 : 고강민 / 의상디자인_김지연 / 작곡&음향 : 김용화, 김태규 / 안무 : 안미경 / 분장 : 장경숙 / 영상 : 김종훈 / 그래픽디자인 : 박연주
출연 호산, 유하복, 이정훈, 이명행, 조영규, 양영미, 김명기, 조한나, 홍의준, 김영노, 강대진 外

戰士叱咤之上將
전 사 질 타 지 상 장
治天下之大頭領
치 천 하 지 대 두 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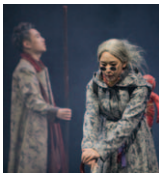
전사를 질타하고
천하를 다스릴 두령의 상이라!

이 말로
셰익스피어 맥베드는
막베스가 되었습니다.



공연개요





공연기간 : 2011년 1월 20일(목) ~ 2월 6일(일) 평일 8:00pm / 토 일 공휴일 4:00pm ※ 2월 2, 3일(설날)과 월요일 공연 없음
공연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 120분
공연문의 : 02-3676-7849
공연예매 : www.hanpac.or.kr 02-3668-0029
관 람 료 : 일반 30,000원 / 학생(대학생 포함) 20,000

공연주최 : 극공작소 마방진 Play Factory Mabangzen

+ 작품설명 및 연출의도 연극 〈칼로막베스〉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드〉Macbeth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무협액션극이다. 지난 해 극단 마방진 창단 5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 작품은 2010 동아연극상(2010 Donga Theater Festival) 에서 작품상과 연출상을 수상해 화제를 모았다. 속도감 넘치는 전개와 에너지 넘치는 움직임을 보여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지만, 끊임없이 유머와 슬랩스틱을 섞어 원작의 무거운 느낌을 상쇄하되 진지한 비극성은 그대로 유지시켜 원작을 살리는 방법을 택했다.



+ 기획의도 「칼로막베스」는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인간의 천박한 욕망을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현대인에게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미래의 모습은 충격으로 다가온다. 특히 욕망의 끝에 어처구니없는 파멸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관객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욕망이 어쩌면 자신을 상실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충격과 내면적 갈등에 사로잡힐 것이다.



+ 시놉시스 SYNOPSIS

먼 미래. 수용소 세렝게티베이는 강력범들과 무정부주의자들로 넘쳐난다. 불결한 혈통의 자연도태를 원했던 경찰정부는 이들에게 칼 한자루씩을 주어, 죽고 죽이는 야생의 세계를 만들어준다. 5개의 영토 가운데 가장 비옥한 스포틀랜드에, 스웜프독의 스윙이 쳐들어오지만 막베스와 방커가 물리친다. 그들은 승리감과 피로감에 취해 잠이 들고 백일몽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맹인술사를 만난다. 맹인술사는 막베스가 서북지역장이 되고 또 나중에는 스포틀랜드의 보스가 될 것이며, 방커는 대대손손 보스의 뿌리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막베스처(妻)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 당컨 보스를 죽이도록 막베스를 부추긴다. 보스의 자리에 야망을 갖고 있던 막베스는 당컨을 죽인다. 도망친 당컨의 아들 말콤에게 혐의가 돌아가게 흉계를 꾸미고 막베스는 보스의 자리에 오른다. 막베스는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방커 부자를 제거하기 위해 자객을 보내지만 방커만 살해된다. 맥다프가 잉글랜드에 있는 말콤 곁으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은 막베스는 그의 처자들도 모두 살해한다. 죄책감으로 몽유병에 시달리던 막베스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말콤을 내세운 드라이포트의 용병들이 진격해 들어오고 스포틀랜드의 조직원들도 그들에게 합세한다. 막베스는 결국 맥다프의 손에 죽고 생존자들은 새로운 죄수들이 쏜 총에 맞아 모두 죽는다. 바야흐로 막싸스의 시대가 열린다.

+ 극단소개 THEATRE COMPANY

극단 극공작소 마방진 Play Factory Mabangzen

2005년에 작가 겸 연출가인 고선웅 Koh Sunwoong이 창단했다. 마술적 사실주의를 표방, 형식의 미학과 소통방법 및 그 수위에 관심이 많다. 배우보다 관객이 더욱 완벽한 감성적 상상력을 가졌다고 믿고 끊임없이 드라마를 비틀어 관객의 기대를 빗나가게 한다. 대표작으로는 〈강철왕 Stainless Man〉과 〈들소의 달〉(2010년 서울연극제 우수작품상 수상
1st place, Seoul Theater Festival, "Buffalo Moon"), 〈락희맨 쇼 Lucky Man Show〉 등이 있다. 극단명 '마방진'은 숫자의 합이 사방으로 일치하는 정교한 진법으로 배우의 감성과 편차에 상관없이 그 전체의 합은 늘 같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혜경 & 이즈음무용단

이혜경의 '박' bak

판소리를 재료로 이혜경의 어법으로 양념한 춤대목이라는 요리를 대접한다!
Dancing part that is made of 'Pansori' will be presented with Lee's unique language.

「박」의 결론! 원본에 대한 지식으로 맛보다!
The conclusion of 'bak'! Tasting the knowledge about original!



단체 이혜경 & 이즈음무용단
안무 이 혜 경
연출 이 재 환
출연 배강원, 정명훈, 유은석, 유효정, 정세라, 김보연, 김희준, 김동훈, 신원국, 변창일, 황예슬, 이지영, 이고운, 최아영, 서민영

공연개요





공연기간 : 2월 12일(토) ~ 13일(일) 4:00pm
공연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연령 : 6세 이상
러닝타임 : 60분
공연문의 : 031-553-2747
관람료 :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

공연주최 : 한국공연예술센터, 이혜경 &이즈음무용단
Lee Hae Kyung & ISUM Dance Company

+ **작품설명** 박」은 원작 「흥부가」에는 없는 새로운 에피소드를 추가해 풀어나간다. 원작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흥부의 자식들을 전면에 내세워 흥부가 가진 소박한 꿈을 노래하지만 이내 흥부는 이 조차도 집착이라고 생각하고 자책한다. 흥부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이미 「흥부가」의 결말을 알고 있는 관객은 흥부에게 측은함을 느끼고 이를 확장시켜 자신을 돌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작품의 핵심 메시지가 있다.

+ **기획의도** 안무가 이혜경이 한국 춤의 해학적 요소를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려낸 「박」으로 돌아왔다. 「박」은 지난해 '서울문화재단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지원 선정작'(An award winning of creative performance art supporting at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
대학로공연예술센터 기획공연 선정작'("An award winning of Planned Performance in Daehakro performing arts center")
'2010 대한민국무용대상 출품작'("An entry of Korea dancing award at 2010") 으로 선정돼 화제를 모았다. 「박」은 고전 판소리 「흥부가」에 상상된 대목을 추가함으로써 한국 전통 예술의 창조적 가능성을 실험하고, 노래에 담겨있는 교훈을 현대적으로 풀어낸다. 생활고에 찌들어 막연히 '언젠가'를 기다리는 현대인에게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을 회고하게 함으로써 내면을 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 시놉시스 SYNOPSIS

「박」 의 총체적 스토리라인은 원본 「흥부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흥부가 박을 바라보며 떠올리는 단편적 회상과 상상을 박바라기-춤대목이라고 지칭하고 이를 움직임으로 어법화하고자 한다.
흥부가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흥부의 아홉 자식들을 전면에 내세워 흥부의 소박하기 짝이 없는 상상과 꿈을 현실속의 흥부가 단편적 회상과 상상에 이어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론도 형식으로 스토리 라인이 진행된다. 여기서 비춰지는 흥부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

+ 무용단 소개 DANCE COMPANY

이혜경 & 이즈음무용단

Lee Hae Kyung & ISUM DanceCompany

이혜경&이즈음무용단은 '정체성을 갖춘 현대 춤 창조'에 초점을 두고, '2010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 심사위원선 정 특별예술가상'을 수상한 안무가 이혜경을 주축으로 동일한 춤 정신을 가진 젊은 무용가들이 뜻을 모아 2004년 설립됐다. 이혜경의 안무는 한국 전통 춤에 내재되어 있는 해학적 요소를 비틀어 현대 춤과 자연스럽게 접목시킨 과감함이 특징이다.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완벽한 무대매너, 치밀하고 밀도 있는 안무력으로 지난 제31회 서울무용제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이태상 댄스 프로젝트

코뿔소 Rhinoceros

인간인가 야수인가? 현대인의 슬픈 자화상

단체 이태상 D.T.1 (Lee Tae Sang D.T.1)
극본 안무 이 태 상
출연 최혜경, 이영찬, 변소연, 임진호, 지경민, 이지선 外



공연개요



공연기간 : 2월 25일(금) 8:00pm / 26일(토) 6:00pm
공연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관람연령 : 8세 이상
러닝타임 : 60분 (인터미션 없음)
관람료 :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공연문의 : 02-3216-1185 ㈜애스플랜

공연주최 : 한국공연예술센터, 이태상 D.T.1





+ 작품설명 이태상 D.T.1의 〈코뿔소〉는 부조리극의 대부 외젠 이오네스크의 동명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창작 현대 무용으로, 2009년 3월 국내 초연 무대 이후, 2010년 7월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 초청 공연에서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양면성과 잠재된 무의식적 야수성, 결핍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랑 등 현대인들의 부조리한 일면들이 안무가 이태상의 남다른 스피드와 집중력, 강렬하면서도 재치 넘치는 안무로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이 작품은 '진정 코뿔소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변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내면을 객관적이면서도 철학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공연이 진행되면 될수록 관객들을 몰입시키는 강렬하고 최면적인 작품' 이라고 평가했다.

+ 기획의도 〈코뿔소〉는 서울문화재단의 젊은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인 '2008 나트 (NArT: New Artist Trend)' 에서 최종 선정작으로 뽑혀, 2009년 3월 초연 무대를 가졌다. 지난 2010년 7월에는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에서 주관하는 ' 더 스튜디오즈 (The Studios)' 시리즈에 초청 받아 우아함과 열정, 강렬함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안무, 실험적인 주제의 명료하면서도 재치 있는 표현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오네스크의 동명 작품이 국내 최초로 현대 무용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데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한 이 작품은 현대 무용을 통한 원작의 재해석, 다양한 관객층 확보, 무용 창작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이번 재공연 무대를 통해 우수 무용 작품의 레퍼토리 공연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김복희 무대만들기 40주년 – 레퍼토리공연

The Stage for celebrating 40th anniversary of Kimbockhee dance company

단체 김복희 무용단 Kim Bock Hee Dance Company
안무 김 복 희
조안무 손 관 중
출연 오문자, 정혜진, 손관중, 서은정, 김남식, 이정연, 박은성, 문지애, 김성용, 천성우, 박종현, 신동현, 유호식, 이지희, 전혁진, 민희은, 박은영, 이준욱, 김은정, 한나연, 최재혁, 김경일, 권민찬, 한선천 外 김복희 무용단원



공연개요



공연기간 : 2월 16일(수) 8:00pm / 18일(금) 8:00pm / 20일(일) 4:00pm
공연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연령 : 만 7세 이상
러닝타임 : 80~100분
관 람 료 : 20,000원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50% 할인 (동반 1인 포함) / 학생단체할인 50% / 일반단체 30% / 한팩in 20% 할인
공연문의 : 02-2220-1332, 1338

공연주최 : 한국공연예술센터, 김복희무용단



+ 기획의도 한국적 현대무용을 추구한 작가 김복희는 무대 만들기 40년, 자신의 춤 세계를 정리하기 위해 2008년 부터 신작과 더불어 레파토리 시리즈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불교적 정신 세계관을 가진 안무가 김복희는 불교적 윤회사상으로 삶을 해석하고, 그 세계를 「아홉개의 의 문 그리고… 1992」, 「꿈, 탐욕이 그리는 그림,1995」 등 많은 작품에 담아냈다.

이번 공연에는 아르코예술극장 기획공연으로 「흙의 울음, 2009」, 「꿈, 탐욕이 그리는 그림, 1995」, 「피의결혼, 1997」, 「달과 까마귀, 2002」를 무대에 올린다.

+ 시놉시스 SYNOPSIS

2월 16일 (수) 8:00pm

흙의 울음

안무 : 김복희
음악 : 이돈응
음악편집 : 김태근

프롤로그

1막 꿈 이야기

골육상쟁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권좌를 향한 욕심은 피붙이를 죽이고
변절하지 않는 충정은 죽음으로 몰리고
당파의 바람은 아들을 뒤주 속에 넣어 질식시키고
시부와의 갈등은 국모의 시해로 까지 이어진다.

2막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은
늘 미친듯이 불어오는 바람 속을
울부짖으며 헤매곤 한다.
한 발은 내 양심에 묻고
내사랑에 대한 배신에
몸서리치는 허무를 끌어안고
사랑에 미치고 있다.

3막 오욕의 욕

평화롭고 전원적 이미지
서정성이 내재된 분위기
음양이 조화되는 의식이 펼쳐진다.
물과 대지를 정화하고 땅을 가는 힘은
숭고한 음양에 조화에 나온다.
인간이 지닌 내면의 욕구의 강렬함을 대비 시킨다.

에필로그 흙의 꿈

2월 18일(금) 8:00pm

1부 꿈, 탐욕이 그리는 그림

안무 : 김복희
초연 : 1995년
음악 : 강준일

꿈은 1947년 춘원 이광수의 소설로 조신 대사가 꿈을 통해 해탈의 과정에서 달례라는 여인을 통해 벗어 날수 없는 인간사의 본능적 요소를 이야기 한 것으로서 조신의 욕망과 애증과 악의 덩어리임을 차차 깨닫게 된다.
조신은 달례와의 사랑 때문에 친구인 평목을 살해하고 그러면서 달례의 약혼자 모례에게 계속 쫓긴다. 마침내 자식의 죽음을 맞아 인간사 괴로움의 극치에 달하게 되면서 꿈을 깬다. 그러면서 해탈의 경지로 이어진다는 내용이다.

2부 피의 결혼

안무 : 김복희
초연 : 1997년
음악 : 정안민

밤 꾀꼬리가 황금꽃 위로 날으며 일러주네
성난 두 격류가 바위사이에서 부딪치니
그들의 눈은 꺽어진 꽃이 되고
그들의 이는 두 웅큼의 은 눈덩이 되어버렸다오
황금꽃 위로 더러운 모래가 날리며.
또 전해주네…
별처럼 식장을 나서야 할 신부는 피의 길을 걸었다고…

38세의 생애를 스페인 내전(1936년)때 참혹하게 마친 가르시아 로르카는 원작 「피의 결혼」에서 한 여자와 두 남자 그리고 불행을 느끼는 모두의 비극적 이야기를 팽팽하고 불꽃 같이 그려 놓았다. 그 시대적 상황과 라틴 문화의 열정이 우리네 감정을 울리고 그 울림은 우리의 춤으로 풀린다. 「피의 결혼」을 우리의 전통 혼례와 장례의 이미지를 접목하여 춤으로 풀어본다.

2월 20일(일) 4:00pm

달과 까마귀 – 이중섭 이야기

안무 : 김복희
초연 : 2002년
음악 : 이돈응

프롤로그

1막 달과 까마귀

1999년 회고전으로 재탄생 그리고 과거의 죽음으로 되돌아가고 다시 친구들과 만나는 그의 독특한 성격표현과 남덕과의 만남

2막 부부

중섭과 남덕의 만남과 혼례 그리고 사랑과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족애

3막 돌아오지 않는 강

남덕과 아이들은 일본으로 떠나고…
죽음과 재생

에필로그

+ 안무가 소개 ARTIST

김복희 Kimbockhee

1971년 안무가로 데뷔한 김복희는 줄 곳 한국적이미지를 유니버설한 미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만들어 내는 작업을 해왔다 철저한 현대무용 기교를 구사하며 한국에 어떤 무용가보다도 더 강한 한국적 색체를 띈 작품을 만드는 작가의 길을 걸었다 「법열의 시,1971」에서부터 「슬픈 바람이 머문집, 2001」 「달과 까마귀 – 이중섭이야기, 2002」, 「삶 꽃 바람꽃 II, 2003」, 「우리시대의 새, 2004」, 「다시 새를 날리는 이유, 2006」, 「흙의 울음, 2009」까지 숫한 대작을 만들면서 그는 자신의 의식 속에 살아있는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한국인의 정신문화를 작품 속에 녹였다.



ReView 26p



Focus 36p



Information 48p



Essay 54p

춤의 진화의 중심에 스트리트 댄스가 있다! 〈온더무브〉

이 동 우 _ 무용평론가

아르코 극장에서 비보이 공연을 한다길래 처음엔 잘 못 들었으려니 했다. 아르코 극장 역사를 통틀어 힙합이나 브레이크 댄스 공연이 있었던가? 반신반의하며 공연장에 들어섰다. 관객은 예상보다 다양했다. 스트리트 댄서로 보일법한 젊다 못해 어린 학생들은 물론, 내 옆자리에 앉은 커플처럼 대학로를 거닐다 호기심으로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외국인들도 간혹 보였고, 가족일진 모르겠지만, 심지어 연로하신 분들도 자리를 차지하고 계셨으며, 현대춤과 한국춤 관계자들도 다수 보였다. 로비에서부터 객석까지 여느 춤 공연에서 볼 수 없던 아르코 극장의 새로운 분위기가 느껴졌다.

축제의 막이 열리기에 앞서, 탭댄스와 현대춤의 즉흥으로 시작되었다. 공연의 프롤로그라 할 수 있는 즉흥은 이 자리가 스트리트 댄스 경합대회를 의미하는 "배틀 (Battle)"과는 의미와 지향점의 차별화를 알리는 메시지였다. 반주음악은 없었지만, 맨발의 움직임과 이 움직임에 맞춘 탭의 리듬이 춤의 아카펠라인 동시에 일반인들에게도 거리감 있는 현대춤이 탭과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장르의 화합을 표현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스트리트 댄스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다. 하지만 첫 무대가 끝나고 본격적인 막이 열리자 보이는 무대를 가득채운 출연자들에게서 축제의 실감이 났다. 흰 셔츠와 카키색 바지로 통일한 모든 출연자들이 나와 큰 춤판을 벌임으로써 본격적인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2010년 7월 16일 아르코 예술극장과 대학로 예술극장이 통합한 한국공연예술센터(HanPAC)의 출범이후 "차세대 공연예술가 발굴사업"의 일환으로 그간 소원했던 예술계의 대중 춤을 끌어안기는 이렇게 시작했다. 그리고 시작이 좋았다. 첫 날 1막 공연 '힙합 클리닉'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대춤과 힙합의 어울림을 강사로 초빙된 강사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 선보이는 의미 있는 무대였다. 중,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참가팀 Original Mind, 대학교 재학생들로 이루어진 N.O.D., 그리고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대학 졸업반들로 이루어진 F.L.E.X. 과 Select Character 이상 네 팀이 참가해 각 팀의 이름이 지향하는 독특한 색깔을 발휘했다. 때문에 아마추어 힙합그룹의 무대로 기교보다는 순수함과 열정이 돋보였다. 무엇보다도 스트리트 댄스라는 즉흥성이 가식 없는 순수함과 맞았다고나 할까.

둘째 날은 전문 스트리트 댄서들의 무대였다. 전문 팀들이 아마추어와 다른 점은 아무래도 역동성과 테크닉이다. 지도를 받는 차원에서 그간의 숙련도를 바탕으로 실험성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각 팀마다 독특한 무대를 연출했다.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Soul Sisters를 첫 무대로 80년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여성 그룹 The B, 혼성그룹 몰입, 또 다른 복고스타일의 Brain Mind 그리고 팀 이름에 걸맞게 비틀즈소재의 춤을 선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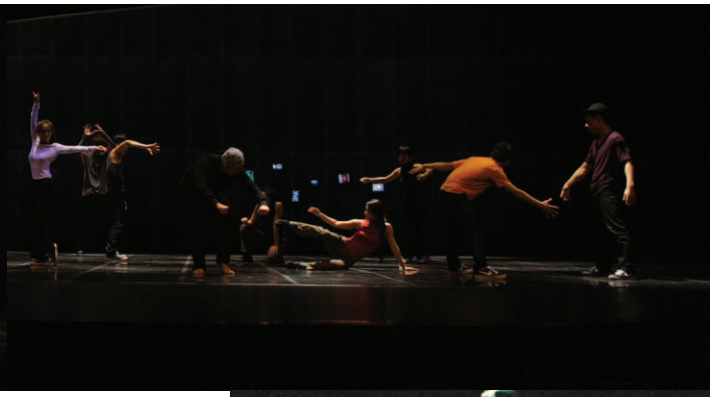


Animation Crew 등의 순서로 약 10팀이 참가하였는데 복고풍스타일이 눈에 많이 띄였다. 전날보다 더 전문적인 기교와 구성력으로 한 팀씩 공연이 끝날 때 마다 전석을 메운 관객들에게 아낌없는 갈채를 받았는데 무대 위에서나 아래에서나 그 누구보다도 스트리트 댄스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으로 온 관객들로 인해 점잖은 공연에 비해 아르코 극장이 몇 년 더 젊어진 느낌이었다.

그간 대중적이라는 이유가 격이 떨어진다는 공식이 되어 공영극장에서 대중문화의 공연을 불허한 적이 있었다. 지금으로 볼 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나 하겠지만, 공연 내용도 그렇지만 점잖은 공연장에 어울리지 않게 열광하는 관객들의 '격' 도 불허의 이유 중 하나였다. 이러한 논쟁은 대중예술관계자 뿐 만 아니라 팬들의 꾸준한 노력과 세련된 대중문화의 수준이 동반상승하면서 지금은 대극장등에서도 대중가수들의 콘서트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가치관의 차이가 낳은 과거의 불행일 수는 있지만, 이 때문에라도 대중문화가 더욱 분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고 가요와 오케스트라의 만남등과 같은 시도는 대중가요 콘서트를 오페라 극장에서도 관람할 수 있는 오늘날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대중 춤 역시 마찬가지다. 그간 한국 춤계에서도 이미 비보이나 방송 댄스 출신의 발레리노나 현대무용수가 등장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브레이크 댄스에서 비보이로, 힙합으로 인식되는 스트리트 댄스역시 클럽이나 스트리트에 안주하지 않고 그간 다양한 배틀 대회의 개최와 공연과 영화의 소재를 통한 범세계적인 대중팬 확보를 통해 스트리트 댄스는 이른바 "스튜디오 댄스"에 당당히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세대와 계층에 따라 스트리트 댄스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무대화를 통해 그간 달리 생각하고 있는 대중 춤에 대해 긍정적인 공통분모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자칫 스트리트 댄스라는 자유스러움을 무대 속으로 끌어들여 제약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노파심이 생길수도 있다. 그러나 스트리트 댄스의 무대화 작업은 '박제화 작업'이 아니라 기존의 춤 장르의 접목을 통한 실험 작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작품화를 통한 영역의 교류는 춤에 대한, 안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 또 다른 장르의 탄생이 언젠간 이루







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흑인과 히스패닉 문화에 기반을 두었지만, 전문적인 춤 교육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격렬한 즉흥의 몸짓과 비트 그리고 현실과 권위에 대한 저항정신을 반영하기도한 스트리트 댄스는 한국인들의 정서와도 잘 어울린다. 따라서 춤의 진화를 통해 질시 받았던 '이국적 몸짓' 은 탈춤이나 태권도 등의 한국적 동작과 만나면서 한국만의 춤 문화로 거듭났으며 그 결실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셈이다.

공연 양일간 2막에 선보였던 안애순 안무 〈온 더 무브〉는 9명의 비보이 그룹 '라스트포원' 의 단원들 뿐만 아니라 신진 현대무용가와 한국 무용가 8명과 함께 협업한 역작이다. 길거리 농구나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다투는 모습, 아이팟을 들으며 흥얼거리는 평범하고도 간단한 몸짓을 통해 탄생한 스트리트 댄스의 역동적이지만 다소 거친감이 있는 몸짓을 현대춤이 가세하여 미학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전개시키는 한편, 군데군데 보이는 한국춤사위를 통해 이제 스트리트 댄스란 국지적인 춤의 장르가 아닌 동서고금을 망라한 '문화' 임을 표현했다. 클라이맥스에서 모든 프로시니엄 극장의 특징이면서도 한계인 '제 4의 벽' 을 여는 연출을 통해 무대와 거리 (street)와의 거리 (distance)를 좁히려는 아르코 극장의 의지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춤을 바라보자는 말없는 메시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춤중심극장으로의 스트리트 댄스의 입성의 필요성을 나타낸 이 작품을 통해 앞으로 스트리트 댄스가 예술과 대중 사이에서 보다 많은 춤의 저변 확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다리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간 문제아, 소외계층이 추는 춤으로 치부되던 스트리트 댄스를 무대에 올림으로서 스트리트 댄서들에게는 자신이 추고 있는 춤에 대한 더 큰 긍지를 불어넣어 주며, 학생들에게는 더 할 나위없는 문화예술 경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2010 온 더 무브' 가 제시했다. 예술 춤과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더 큰 자극이 될 이 행사는 지속적인 기획이 뒷받침 된다면 스트리트 댄스의 진화 뿐 만아니라 엘리트주의가 지배적인 춤계가 느끼고 있는 경직성과 한계성에도 도전을 주는 윈 윈 (Win-win)의 장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댄스 드라마라는 장르를 통해 비보이와 발레의 만남을 극으로 표현해 대중의 호응을 얻은 바와 같이 여러 장르의 춤들과 이웃하면서 그들과 함께 창조적인 장르가 탄생될 인큐베이터 역할도 겸하기를 '2010 온 더 무브' 를 지켜보며 앞으로의 한국공연예술센터의 아낌없는 지원을 기대해본다.





다양한 구성 요소들 간의 상응
이동원의〈무엇을 바라보는가?〉

심 정 민 _ 무용평론가, 비평사학자

근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주목받아왔던 이동원은 2010년 젊은 무용가로서는 정점을 찍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0 AYAF 아르코 영아트프론티어)와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후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한국공연예술센터(HanPAC)의 기획공연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2010년 12월 7일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소개된 〈무엇을 바라보는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사유, 장애인무용수의 움직임에 대한 탐구, 즉흥적인 작용과 실험의 활용, 춤과 다른 매체 사이의 상호교류를 담아낸다.

〈무엇을 바라보는가?〉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보이는 그대로인지 또 보이는 그대로를 진실로 받아들여야만 하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은 문제를 던져주고 이를 움직임이나 그밖에 요소로 풀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이동원은 주제의 의미를 담은 문제제기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세 가지 부분 즉 장애인무용수의 움직임 탐구, 즉흥적인 작용과 실험, 여러 장르의 상호교류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동원, 김준희, 이효선, 전보라, 김용우에 의해 실현된 〈무엇을 바라보는가?〉에서 주목할 만한 무용수라면 아무래도 장애인무용수 김용우를 꼽을 수 있다. 이동원은 이전에 장애인무용수와 작업했던 경험을 통해 얻은 독특한 움직임에 대한 영감을 바탕으로 이 작품에 착수하였다. 제약을 지닌 몸으로 만들어내는 동작들이 도리어 독특성을 가지며 기존 춤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미 휠체어댄스로 상당히 알려진 김용우는 휠체어를 자신의 신체의 일부처럼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빠르게 달리다가 다음 순간 급작스럽게 멈추고, 제자리에서 현란하게 돌거나 지그재그로 정교하게 딛고, 넘어질 듯한 각도로 아슬아슬하게 기울기도 한다. 휠체어와 밀착한 몸은 상당한 파워와 에너지를 함양하고 있다. 강한 비트의 음향에 반응하는 몸의 리듬감 역시 두드러진다. 그는 함께 작업하는 무용수들에게 동작적 영감을 주기 충분하다.

다만 김용우가 자신의 전문영역인 휠체어댄스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무용수들이 현대무용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이따금씩 끈끈한 일체감을 지닌 안무에 약점을 보였다. 로이드 뉴슨의 〈삶의 댓가(Cost of Living)〉에서처럼 장애인의 독특한 몸놀림을 현대무용적인 동작으로 '진화' 시켜가는 능력을 바란다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일까?

전체적인 춤의 구성은 큰 틀을 잡아놓고서 다섯 명의 협력작업으로 채워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무용수들은 안무가에 의해 주어



진 문제꺼리들을 움직임 형상으로 풀어간다. 다른 무용수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체 각 부분에 손을 대고 떼기를 반복하고, 레슬링하듯 서로 몸의 여러 부분을 엉켰다 풀었다하고, 음료수가 든 컵을 주거니 받거니 교환하다가 들이키고, 공동작업하는 기술스태프까지 해프닝에 참여하게 하는 등 다양한 즉흥적인 작용과 실험을 연속한다. 무용수들을 중심으로 한 협력작업이 적절히 이루어진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작품 전체를 묵묵히 서포터 하는 김준희의 역할을 간과할 수는 없다. 춤에서 뿐 아니라 삶에서도 돈독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이동원과 김준희 두 무용가의 협력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젊은 무용가들 중에서 (접촉)즉흥의 작용이나 실험의 일부 요소들을 작품에 적극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할 점은 (접촉)즉흥적인 작용이나 실험이 단순히 전시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안무 안에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그 활용 과정에서 진지한 탐구와 고찰을 필요로 한다. 이동원이 몇 개의 전작에서 이를 위한 노력을 보여준 만큼 앞으로 더욱 심층적인 집중력을 기대해본다.

뿐만 아니라 사운드디자인 써트 지미, 영상 신규빈, 조명디자인 신호, 무대디자인 이종영, 호흡디자인 오치운 등의 스태프들 역시 제 역할을 해줌으로써 춤과 타 요소들 간의 협력작업을 적절하게 이루어냈다. 이동원이 그 동안 꾸준하게 추구해온 춤, 영상, 조명, 음향 등의 상호적 교류는 〈무엇을 바라보는가?〉에도 여실하다. 여기서 영상이나 조명 혹은 음향 등은 춤과 동률적인 관련 맺기를 통해서 양자 간 상승효과를 꾀한다. 타 요소들이 춤을 돋보이게 하는 부수적인 장치라기보다 춤과 상호교류 하는 활용도를 보이는 것이다. 다분히 컨템포러리댄스적인 접근이라 하겠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김용우가 이동원의 부축을 받아 직립하는 엔딩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담겨진 다양한 구성 요소들 간의 상응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체적인 완성도에서 다소 약점을 드러내긴 하나 여러 구성요소들 사이에 상응이라는 이동원의 예술성향을 선명하게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작품이다.









공감각적 공연예술로서 "문지방 체험"을 줄 수 있으려면!

〈휘가로의 결혼〉

김 형 기 _ 연극평론가

피에르 보마르셰(1732-1799)의 희극 〈피가로의 결혼〉(1781)이 2010년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에 오페라가 아닌 연극으로 상연되어 관객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교훈 그리고 희극적 즐거움을 안겨주었다(구태환 연출, 2010. 12. 10-26,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막이 오르면 백작 알마비바(김태훈 분)는 시녀 수잔느(이지하 분)가 자신의 하인인 피가로와 결혼하는 것에 반대는 하지 않지만, 봉건영주의 권리인 초야권을 내세워 그녀를 자신의 침실 옆방에 재우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아내 로진(이항나 분)에게 애정이 식어 싫증이 나 있으면서도, 백작부인을 비롯해 수잔느, 그리고 정원사의 딸인 프랑세트(박초롱 분) 등 궁정의 모든 여인에 대한 사랑에 빠져 있는 시동(侍童) 셰뤼뱅(김정현 분)을 질투한다. 피가로(이영범 분)는 수잔느와 백작부인과 힘을 합해 백작의 계략을 막기 위한 온갖 수단을 강구한다. 먼저 피가로는 백작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내에 대하여 질투심을 느끼게 한다. 알마비바 백작은 자기 부인의 방에 시동이 잠시 머무를 때 찾아와 그녀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한다. 그 시동이 옆방에 몸을 숨기고 있는 동안에 백작은 자신의 아내에게 질투장면을 연출한다. 하지만 수잔느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백작부인을 구한다. 즉 수잔느가 벽장 속으로 숨어들어 시동을 창문 밖으로 도망가게 하고 그 자리에 대신 간다. 백작은 이내 부끄러워하며 아내에게 용서를 구한다.

그러나 이때 정원사 안토니오(허웅 분)가 나타나 어떤 남자가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 피가로가 바로 자신이 안토니오가 보았다고 하는 그 남자임을 밝히는 데 성공하긴 하지만, 백작은 의심을 품는다. 피가로를 벌하고자 백작은 사법부의 결정으로 그를 바르톨로(이승호 분)의 옛 애인인 나이 든 마르셀린(차유경 분)과 강제로 결혼시키려고 한다. 마르셀린은 피가로가 왕년에 쓴 혼인약정서를 내민다. 그러나 심리(審理)과정에서 피가로가 마르셀린과 바르톨로 사이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렇게 해서 백작은 다시금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다. 이런 백작에게 최종적으로 창피를 주고 또 결혼을 축하할 수 있도록 수잔느는 백작 부인과의 합의 하에 그에게 쪽지 편지를 써서, 정원에서 한 밤중에 밀회를 갖자고 제안한다. 피가로에게는 이러한 은밀한 계획이 통보되지 않았지만, 우연히 이 밀회를 알게 된다.

백작 부인과 수잔느는 의상을 바꿔 입고 정원으로 이동한다. 어둠 속에서 백작은 자기 아내를 수잔느로, 수잔느를 백작 부인으로 오인하지만, 피가로는 이것이 착각임을 금방 알아챈다. 그러나 백작은 수잔느라고 여기는 자신의 아내에게 아첨을 떠느라 여념이 없다. 궁중사람들이 폭소하





자 비로소 알마비바 백작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바람을 피우려던 백작은 아내에게 용서를 빈다. 좋은 일을 당하고도 불쾌한 기색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는 초야권도 요구하지 못한 채 피가로와 수잔느의 결혼을 마침내 승낙하고 만다. 무대 위의 모든 사람들은 일이 무사히 수습된 것을 기뻐하고 결혼식 피로연장으로 향하며 막이 내린다.

여성주의의 색채를 다분히 띠고 있는 〈피가로의 결혼〉에서 보마르셰는 이미 〈세비야의 이발사〉(1775)에서 보여준 극적 독창성, 예컨대 오해의 연속이라든가 복잡다기한 줄거리, 근거 없이 전개되는 예측불허의 사건들, 인물들의 모순, 활기찬 동작들, 고전주의 희극에 비해 네 배나 많은 대사의 막힘없는 빠른 진행, 경이로울 만큼의 적절한 말 등을 탁월하게 사용하여 작품 속 귀족과 남성 그리고 법관들과 같은 지배계층의 위선과 거드름을 신랄하게 풍자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작품은 프랑스 대혁명(1789)을 예견한 작품의 하나로 종종 간주되기는 하지만, 전복의 의도는 담겨 있지 않다.

이 희극은 모차르트가 작곡하여 1786년 빈에서 상연한 동명의 오페라 공연을 통해서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명작이다. 국내에서도 사실 오페라의 형태로 더 자주 관객을 맞았던 이 희극을 극단 실험극장이 창단 50주년 기념공연의 일환으로 다시 무대에 올렸다.

이번 공연의 미덕을 찾는다면, 바로 위에서 언급한 극작상의 독창성을 연출과 연기자들이 공연텍스트 속에 적절하게 구현해낸 점이다. 특별히 이항나, 김태훈, 이영범, 이지하, 이승호, 차유경, 김정현 등 신구 연기자들이 일궈낸 주도면밀한 대사와 연기의 앙상블은 세상의 정도(正道)에서 벗어난 인물에 대한 정서적 해방의 웃음과 더불어 도덕적, 사회적 교정을 위한 지적 웃음을 한껏 선사하고 있다. 이는 이 작품이 복잡하고 치밀한 사건 구조에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계략희극이자 상황희극이어서 각각의 캐릭터라든가 인물 상호간의 관계를 정확히 포착하여 섬세하게 드러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에 연유한다. 그렇다 보니 이번 공연은 자연스럽게 지시적 성격이 강한 언어기호와 모방적 동작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이야기의 연결과 흐름은 매끄러우나 희곡이 아닌, 공연예술로서의 연극에서 체험할 수 있는 수행적인 것을 통한 심미적 경험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럴 경우 언어 중심의 연극이 갖는 단점도 간과할 수 없다. 즉 배우와 관객이 '지금, 여기서 공동으로 현전하는 몸'의 예술인 공연작품에서 물질적 지각을 통한 미적 경험을 맛보는 대신, 공연 자체를 단순히 의미론적 해석의 대상으로 환원시킬 위험성이 있다. 이번 연극 공연을 보면서 느꼈던 단조로움과 아쉬움도 바로 의미로 환원되기에 앞서 공연 자체를 구성하는 물질(몸)적 에너지와 시청각적 이미지 등의 수행성을 통한 관객과의 소통이 약했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명작희극의 내용과 메시지를 명확히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극장을 찾는 관객들이 연극을 기호학적 텍스트로서 읽고 해석하려 하기보다는 공연예술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퍼포먼스 고유의 "문지방 체험"(빅터 터너), 다시 말해 수행적이고 공감각적인 것의 경험을 통해 지각과 의식세계의 확장을 맛보고자 한다는 점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조적인 작가 찬가
〈미친극〉

김 숙 현 _ 연극평론가



'연출가'의 연극제작 과정에 관한 이야기인가? 아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즉 연극이 끝날 때까지 관객은 다소 어리둥절하고 복잡한 상태로 있어야만 한다. 그렇다고 공연이 어렵고 지루한건 아니다. 연극은 술집여자와 작가, 사채업자라는 뻔한 캐릭터들 관계를 이야기로 끌어들여 그 작은 이야기가 마치 이 연극의 실체인양 포장해 대중적인 재미까지 부여잡고 있다. 물론 그런 한편으론 사채업자와 작가, 연출가가 서로 얽혀있어 생각은 오락가락 '연극'이라는 포괄적 의미망으로 확장되면서 두뇌게임을 하게 하기도 한다.

밤이면 술집으로 일 나가는 아내 '장미'와 그녀에게 빌붙어 사는 희곡 작가 도연이 실랑이를 벌인다. 왜 밤에만 일을 나가느냐 마느냐 뭐 그런. 먼 과거의 말투로 된 이들의 대화는 이상의 '날개'를 연상시킨다. 다시 연극은 연출가의 연극연습 장면으로 이동하고, 이전 장면에서의 도연과 장미는 연출가의 상상 속 인물인 것으로 드러난다. 그런 연출가에게 사채업자 방학수가 돈을 받으러 오고, 빌린 돈을 못 갚는 연출가의 연극에 그 빚을 투자한 것으로 계약하기에 이른다. 작품제목은 '착한남자 방학수', 해피엔딩이 조건이다. 또한 대박을 빌미로 극중 인물 장미가 사채업자에게 연루되는 이야기로 진행해 나갈 것을 종용한다.

그런데, 방학수는 연출가의 가상인물들인 장미와 도연의 삶 속으로도 들어가서, 장미가 빚을 못 갚을 시에는 부부가 되는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결국 그들과 함께 살게 된다. 방학수와 장미가 함께 잠을 자는 데 손만 잡고 잤느니 어쨌느니 시시껄렁한 문제가 작가 도연네 삶 속 이야기에서도, 물론 연출가의 작품 속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갈등을 야기할 즈음, 그리고 관객도 이 이야기에 빠져 들어갈 즈음 연극은 관객의 습관적 관음증을 차단하면서 담갔던 발을 쑥 뺀다. 도연과 장미의 되풀이되는 반복적 행동을 본 방학수가 이 모든 것이 도연의 원고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야기임을, 그러나 결말만 없는 것임을 알고 격분하여 도연을 죽이는 것으로 급회전하는 것이다. 이후 연출가를 찾아온 방학수가 자신과 연출가간의 이야기가 이미 도연의 상상 속의 이야기에 다 들어 있다고 말하자, 연출가는 그저 그들은 자신의 상상 안에 있는 등장인물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물론 도연의 원고에는, 살해 후 방학수가 다시 연출가를 찾아오는 부분까지 집필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해피엔딩과 무관하게 예정된 자신의 모습에 화가 난 방학수는, 그간에는 분명 '가짜'였던 소품 총으로 연출가를 쏴 죽인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 늙수그레해진 방학수가 빚을 진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게 된다. 그녀 역시 작가이고, 그녀가 쓴 내용은 앞서 진행되어 왔던 모든 이야기들이며 결말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방학수는 다시 확인한다. 제발 이야기를 끝내달라고 애걸하며 울부짖는 방학수와 함께, 웃음소리가 시니컬하게 바람에 흩날리듯 흘러나오며 연극은 끝을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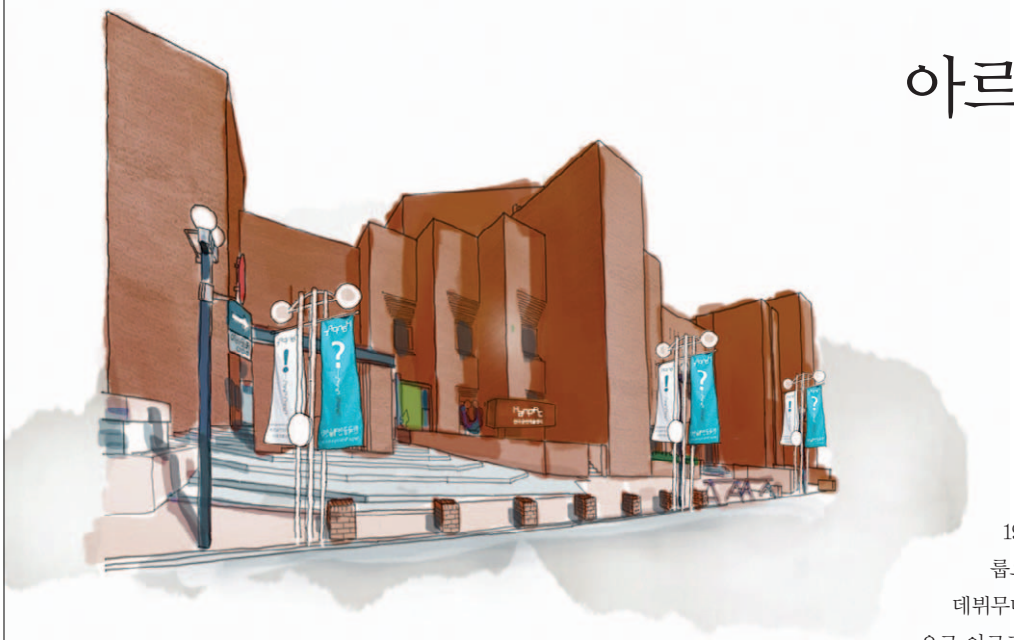
두 구조, 작가 도연을 중심으로 그의 아내 장미와 사채업자 방학수의 이야기와, 다시 연출가를 중심으로 한 사채업자 방학수와 배우들의 이야기가 서로 거울처럼 되비추며 어느 것이 극중 이야기이고 어느 것이 극



중 현실인지, 누구의 상상 속에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홀연 모호해지더니 이 모든 것이 상상 속의 인물이라고 믿었던 '작가' 도연의 것으로, 그리고 그 전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어떤 여작가의 이야기였음이 드러난다. 현실과 허구, 진짜와 가짜가 구분 없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얽힌 이 이야기의 형식은 그대로 작품의 주제가 된다. "큰 상자가 작은 상자를 담고 더 큰 상자가 큰 상자를 담는" 글쓰기의 과정이자, '달리는 기차 안은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 시지푸스의 운명과도 같은 그 '행위 자체'의 반복적 글쓰기에 관한 자기반영적 연극인 것이다. 연극의 결미, 오태석, 이외수, 그리고 신경림 등 무수한 작가들 사진이 영사되었듯이, 공연은 반복되어 온 인류의 연극적 행위 속 끝나지 않을 작가의 글쓰기를 암시한다. 그것은 곧 "달팽이 뿔"처럼 작가의 생각을 완전히 잡을 순 없다는, 작가자존에 관한 작가 최치언의 욕망과 연관되기도 한다. 공연텍스트와 공연담론에만 치중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실추된 작가('A' uthor)와 그 권위(Authority)를 설파하는 이 연극은 그렇게 자조적으로 내뱉듯 말하는, '미친극'이 되는 것이다.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일상의 침대와 소파, 그리고 화장대, 중간이 잘려나간 채 뿌리와 가지만 있는 나무, 이렇듯 간단한 무대장치는 극중 현실과 허구,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왔다갔다' 동시적으로 현존한다. 배우들의 과장되어 '보이는' 연기도 작품 전체 내용과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편안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하모니를 이루어낸다. 많은 장면들을 깔끔하고 날렵하게 잇고 있었음에도 후반부 조명이 꺼질 때마다 관객은 박수를 쳐댄다. 도연의 죽음에서 그리고 연출가의 죽음에서 박수치는 관객들의 모습과, 전통적인 구조에서처럼 엔딩을 요구하고 이야기를 이야기답게 하기위해 흥미로운 인물들이 나와야한다고 주장하는 방학수가 오버랩된다. 마지막 흘러나오는 괴괴한 웃음소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작가의 냉소로 들려 그 파장이 길다.





아르코예술극장과 공연예술축제

– 무용편

김 승 현 _ 공연평론가

아르코예술극장은 한국 춤 축제의 고향이며, 명작의 산실이고 젊은 실험의 요람이었으며 세계 무용 흐름에 대한 창(窓)이다. 특히 한국 창작 춤과 관련, 아르코예술극장의 30년은 한국 창작 컨템포러리 춤의 전성시대와 함께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공관, 국립극장 등 다양한 이름으로 풍파를 겪으면서 일제시대 만들어져 한국 근현대 공연예술의 태동기를 이끈 명동예술극장과 장충동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과 소극장 공간사랑, 그리고 1990년대 등장한 서울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과 자유소극장 등도 한국 창작 춤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질과 양의 측면에서 아르코예술극장에 비교할 수는 없다. 1981년 만들어진 이래 한국 창작 춤의 주요 축제와 명작, 그리고 실험은 바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안애순 한국공연예술센터 무용예술감독은 "한국 연극, 무용이 다 역사가 이 곳에서부터 나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아르코예술극장은 한국 공연예술의 요람"이라고 말했다.

안 감독 역시 대학을 졸업하고 1983년 김현남씨 등 대학동기 4명과 함께 그룹으로 활동하며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데뷔무대를 갖았으며, 1986년 자신의 무용단 이름으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무대에 처음 섰고, 1990년도 대극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무용제에서 '만남'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고 한국의 주요 안무가로 자리를 잡았다.

그는 한국 춤 발전에 기여한 아르코예술극장의 역할과 관련, "한국 춤이 신무용 이후 진실한 의미에서 창작 컨템포러리가 시작된 시점에서 출발점이 된 공간이 바로 아르코예술극장"이라며 "지금도 무용 공간 사이즈 면에서 관객과의 가장 좋은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비는 물론 스태프들까지 가장 우수한 인력을 확보한 최고의 춤 예술 창작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아르코예술극장은 처음부터 무용중심극장은 아니었다. 아르코예술극장을 설계한 사람은 공간사랑을 운영, 공연예술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한국 건축계의 거인 고 김수근이다. 연극, 무용, 음악 등 공연관계자들은 그에게 "공연장이 절대 부족한 우리 현실에 연극, 무용, 콘서트 등 모든 것이 가능한 종합공연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아르코예술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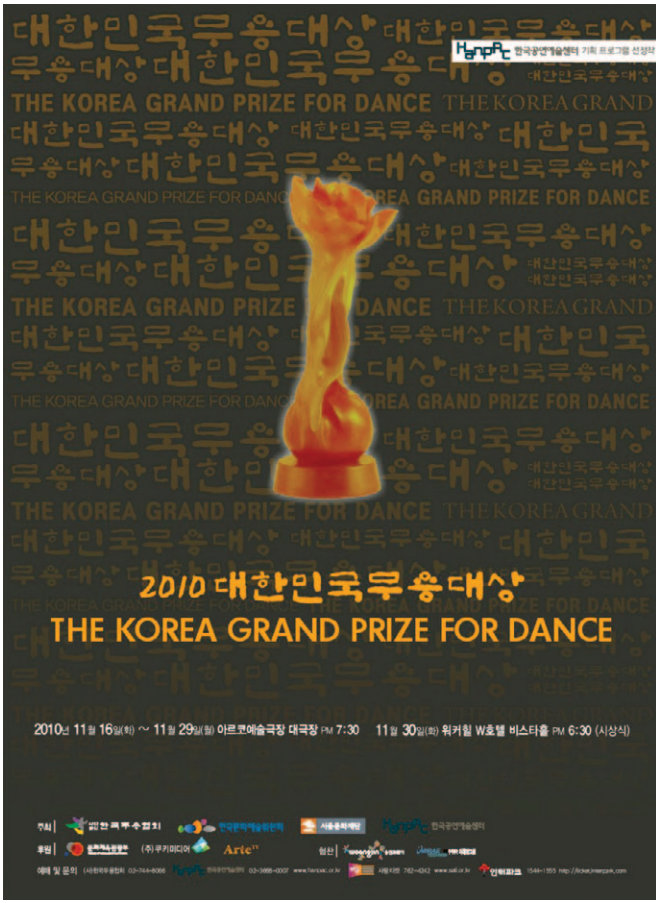
은 당초 종합공연장으로 설계됐다. 1981년 개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대한민국 연극제 등 순수예술 가운데 대중성이 가장 높았던 연극이 가장 많이 공연된 가운데 제6회 대한민국 음악제를 비롯해 챔버오케스트라, 국악제 등 지금은 거의 열리지 않는 클래식 음악과 국악, 전통예술 공연이 많이 열렸고, 무용에 할애된 기간과 입지는 상당히 좁았다.

정재만의 '한', 이정희의 '살풀이굿', 김복희의 '징깽맨이의 편지' 등이 참가한 무용협회 주최 제3회 대한민국 무용제와 신인무용 발표회, 그리고 김복희 · 김화숙 무용단의 현대무용발표회, 고 김천흥의 궁중무용발표회, 김숙자의 정통무용발표회, 컨템포러리무용단의 제3회 무용제수상 기념공연 등이 고작이었다.

1981년 아르코예술극장 개관시즌에 대한민국 무용제와 개인공연 등 가장 많은 무용작품을 올린 김복희 무용협회 이사장은 "시공관을 비롯해 장충동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등 한국의 모든 극장에서 공연을 해봤지만 아르코예술극장은 춤 창작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라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오케스트라 등이 필요해 종합예술에 속하는 발레 대작의 경우 오페라극장 같은 큰 공간이 필요하겠지만 창작이라는 것은 너무 큰 무대에 어울리지 않다"면서 "관객과 '대화'가 가능한 적절한 공간을 갖고 있는 아르코예술극장이 무용 창작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아르코예술극장은 30년 동안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모든 춤 분야의 창작의 요람으로 각 분야의 작품이 대작으로 갈 수 있는 작품의 씨를 뿌리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복희 이사장은 또한 "아르코예술극장은 대작은 물론 솔로나 듀엣을 하기에도 적합한 사이즈와 깊이를 갖고 있다"며 "아르코예술극장의 지난 30년이 한국 춤 창작의 발전의 역사라면, 무용중심극장으로서 앞으로 30년은 한국 춤이 세계로 진출하는 도약대와 함께 춤 대중화를 위한 저변 확대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이지만 대중성이 부족한 창작 무용의 현실에서 명작의 탄생은 경연, 페스티벌과 함께 한다. 공공의 지원이 거의 없



었던 초기 한국 창작춤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래서 건축 당시 최고의 시설과 저렴한 대관료와 탄탄한 스태프를 보유한 아르코예술극장에서의 춤 경연 및 축제는 한국 춤 문제작의 산실이었다.

1979년 시작한 한국 춤의 최고 권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무용제는 이름을 여러 차례 바꿨지만 개최장소만은 1981년 아르코예술극장 개관이래 줄 곳 이곳에서 열리고 있다. 1989년 서울무용제로 이름을 바꿨다가 1995년 서울국제무용제로 외연을 넓히고, 2001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로 서울연극제와 통합됐다가 2003년 다시 서울무용제로 바뀌면서도 개



MODAFE

최 장소는 아르코예술극장을 떠나지 않았다. 창작 춤에 더 이상 적합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1988년 한 해만 경연형식에서 페스티벌 형식으로 바꿨다가 1989년 서울무용제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경연제로 돌아가기까지 대한민국 무용제에 참가한 안무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대로 한국 춤의 전성시대를 이끈 전설적 스타들의 역사다. 육완순, 홍정희, 김매자 등 현대무용, 발레, 한국무용의 전성시대를 이끈 창작 1세대로부터 현대무용에 김복희, 김화숙, 이정희, 최청자, 박명숙, 박인숙, 남정호, 조은미, 김기인, 안신희, 박일규, 한국무용에 김숙자, 정재만, 조흥동, 국수호, 채상묵, 지희영, 김말애, 김현자, 임학선, 윤덕경, 배정혜, 발레에 박인자, 김민희, 김화례, 조윤라, 김경희, 최성이, 서차영 등 현재 한국 무용의 머리와 허리를 이루고 있는 스타들은 물론 이미 스러져 전설이 된 인물들의 이름도 줄줄이 나타난다.

아르코예술극장의 유명한 또 하나의 춤축제는 '모다페(Modafe)'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한국현대무용협회 주최 국제현대무용제다.

국제현대무용제는 개관 이듬해인 1982년 한국 현대무용의 대모(代母) 육완순씨가 이끌던 한국현대무용협회가

'현대무용의 향연'으로 시작했다. 이 축제는 1984년 현대무용제로 발전, 2000년 국제규모로 확대돼 국제현대무용제가 됐다가 2003년부터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모던 댄스 페스티벌(Modern Dance Festival)의 앞 글자를 따 모다페라는 약칭으로 불렸다.

모다페는 현대무용 무용 창작의 산실로서의 역할도 했지만 세계 현대무용의 흐름을 보여주는 창구의 역할도 톡톡히 했다. 아르코예술극장이 한국 춤의 축제, 경연장에서 세계 춤의 흐름을 보여주는 새로운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세계 춤의 흐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무대는 2001년 서울무용제와 서울연극제가 통합, 출범한 서울국제공연예술제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 앞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공연예술제를 표방하며 졸속 출범한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2003년 두 주체인 무용협회와 연극협회의 갈등으로 좌초, 2004년 서울무용제와 서울연극제가 다시 각 협회의 축제로 독립해 나가고 사단법인으로 유지, 세계적 흐름에 맞춰 춤과 연극을 통합하는 공연예술제로 발전해나갔다. 특히 극작가 겸 연출가 김광림, 국립극단 예술감독 출신 연출가 김철리 예술감독 대에 이르러 세계 각국의 앞서 가는 흐름의 공연, 특히 언어를 뛰어넘는 몸을 중심으로 한 춤을 중심으로 한 작품을 대거 소개, 한국 춤 창작의 눈을 한 단계 올려놨다. 연극계 출신의 이들 예술감독들은 행여 무용계의 비판을 의식, 의도적으로 무용 쪽에 레퍼토리에 무게 중심을 둠으로써 한국 무용계는 앞 서 가는 세계적 무용 작품들을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아르코예술극장을 중심으로 한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무용 작품의 눈높이를 한껏 올려놓음으로써 모다페,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 등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열리는 무용 축제들은 첨단의 우수한, 다양한 작품들을 경쟁적으로 무대에 올려 한국 춤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단법인으로 독립됐던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10주년을 맞는 2010년부터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이 통합돼 출범한 한국공연예술센터 사업으로 편입돼 세계 공연예술의 창으로서의 기존의 역할 이외에 한국 공연예술의 세계무대로의 창구, 도약대 역할로의 새로운 변신이 기대된다.

순수 예술 가운데 대중적 기반이 약한 한국 춤은 관객 저변 확대는 물론 춤 자체의 발전과 창작의 활성화를 위해 축제와 경연이 끊임없이 강화돼왔다. 그리고 축제와 경연을 통해 주요 작가로 떠오른 이들은 활발한 개인 공연을 통해 입지를 강화해나갔다. 이는 아르코예술극장 30년의 무용 공연 프로그램이 여실히 보여준다. 아르코예술극장 프로그램의 역사가 바로 한국 현대 춤 창작의 역사와 일치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다.

축제 참가작들을 살펴보면 1980년대와 90년대의 작품이 명확한 흐름의 변화를 보여줘 관심을 끈다. 1990년 안애순의 '만남'이 대상을 탄 이후 세대교체의 흐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입시부정'의 된



서리를 맞아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영향도 컸음을 부인할 수 없다. 김은이, 백현순, 오문자, 김은희, 최은희, 장유경, 홍승엽, 정옥조, 강미리, 백정희, 박현옥, 박재희(장르 구분 없이 연도별 새로 등장한 무용가순) 등 현재 한국 무용에서 중추를 이루고 있는 작가들의 주옥같은 작품들이 무대에 서 한국 창작 춤의 발전을 뽐냈다.

또 한국 창작 춤의 과거와 현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아르코예술극장의 춤 무대가 '현대춤작가 12인전'이다. 1987년 이래 계속되는 춤작가 12인전의 작가와 작품 목록은 그대로 한국 창작춤의 과거와 현재 역사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 구체적 결과물들은 엄격히 선정된 아르코예술극장의 대관공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미 언급된 무용단과 작가들을 제외하고 전미숙, 윤미라, 정은혜, 손관중, 김나영 등의 안무가를 비롯해 현대무용단 탐, 발레블랑, 광주시립발레단, 발레누보, 툇마루무용단, 박인자발레단, 창무회 등 주요단체의 작품들이 아르코예술극장의 무대를 빛냈다.

이와 함께 강선영, 이매방, 최희선, 이애주, 이명자 등 아르코예술극장은 전통춤 명인들의 무대로도 큰 인기를 모았다.

한편 빼놓을 수 없는 아르코예술극장의 한국 춤에 가장 공헌 중의 하나는 도발적 실험무대로서의 역할이다. 한국 춤의 혁신은 아르코예술극장에서 나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무용 창작을 일신한 김현자의 '생춤', 김매자의 '춤본'이 바로 이 곳에서 초연했고, 한국이 낳은 세계적 전위예술가 백남준과 김현자의 크로스오버 실험도 바로 여기에서 열렸다.

특히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은 한국 창작 춤 혁신의 원동력이었다. 1981년 개관이후 무용협회와 현대무용협회 등의 신인등용문인 신인안무가전, 신인발표회가 이곳에서 이뤄졌고, 1985년 안신희, 1986년 안애순의 실험무대에 이어 안은미, 방희선 등 이른바 문제작가들이 바로 소극장 무대에서 탄생했으며 그 전통은 현재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젊은 실험무대의 활성화에 불을 지른 것이 1998년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시작한 '평론가가 뽑은 젊은무용가' 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약칭 '크리틱스 초이스'로 불리는 이 시리즈는 아르코예술극장이 자체 기획공연을 위주로 했던 2008, 2009년을 제외하고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매년 열려 한국 젊은 무용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했다.

박호빈, 김나영, 이윤경, 최지연, 송지영, 이고은, 장은정, 김윤수, 우혜영, 김선아, 국은미, 김종덕, 이경은, 김성한, 최경실, 김윤규, 류석훈, 박나훈, 김정아, 김정은, 이태상, 정영두, 한창호, 정연수, 윤수미, 이나현, 김판선, 김수정, 신창호, 이혜경, 김경영 등 현재 한국 창작 춤의 현재와 미래로 평가되는 이들이 모두 아르코예술극장을 중심으로 열린 크리틱스 초이스 무대를 거쳤다. 2009년 한국 창작 춤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서울무용제 경연부문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크리틱스 초이스 출신일 정도여서 한국 춤의 세대교체와 함께 이 축제의 성가를 여실히 보여줬다.

아르코예술극장은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지난 30년 동안 한국 춤 축제의 고향이며, 명작의 산실, 젊은 실험의 요람이었으며 세계무용 흐름에 대한 창구 역할을 해왔다. 이제 앞으로 무용중심극장으로서의 새로운 30년은 한국 춤의 세계무대로의 도약대이며 문화발신의 창구 역할이다. 또 무용 저변확대를 위한 관객과 소통하는, 살아있는 춤 레퍼토리 확충이다.





지난 달(2011년 01호)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공연예술센터의 극장을 예로 하여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극장의 음향 시스템과 통신시스템인 인터컴, 그리고 음향장비 중 마이크로폰에 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달에는 아르코예술극장의 음향기기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구체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학로예술극장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하되 장비 소개에 국한하기보다는 극장 공간과 아울러 이루어지는 음향 메카니즘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 편집자 주

대학로대극장 음향 확산과 흡음을 위한 반사판과 벽면마감







대학로대극장 콘솔

Backstage Story
한팩 공연지원부

무대 뒤의 사람들 | 한팩 공연지원부 – 음향실

<<< 01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공간 소개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은 연극중심의 극장으로 계획되고 설계되었다. 객석수는 약 500석으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공간의 크기는 조금 작다고 할 수 있다. 연극에서 음향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확한 대사의 전달이다. 무대와 객석간의 거리가 가깝고, 공간의 크기가 크지 않다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듯 배우의 대사가 관객들에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런데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이나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과 같이 500~600석 정도 규모의 극장에서는 애매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배우의 대사 전달이 완벽히 되기가 쉽지 않고, 마이크를 사용하면 공연의 자연스러움이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이크의 사용여부는 배우의 발성과 성량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배우들의 자존심과도 관련이 있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마이크를 사용할 경우 배우는 무대 중앙에 있는데 목소리는 무대 좌우 스피커에서 나오게 된다. 다시 말해 무대에 서 있는 배우의 목소리와, 다른 위치의 스피커에서 확성된 소리가 동시에 들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 관객들은 음향적으로 매우 부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연스러우면서도 대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음향 담당자의 몫이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다.

대사의 전달에 있어서 공간의 크기와 함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공간의 울림이다. 이것은 공간의 천정과 벽면, 그리고 바닥의 마감재, 천정의 높이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같은 크기의 공간이라도 아르코예술극장과 같이 벽면이 벽돌로 마감된 공간과 대학로예술극장과 같이 흡음재로 마감된 공간에서 소리의 울림과 질감은 확연하게 다르다.

각각의 공간에 적합한 장르의 공연이 있고, 그것이 올바르게 선택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한 면에서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은 공간의 울림이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울리지도 않는 적절한 공간이어서 대사의 명료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연극과 관련된 많은 배우와 연출가들이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에서 울림이 중요한 클래식 음악 공연을 한다면 연주자와 관객 모두가 힘든 공연이 될 것이다.

이렇듯 극장이 한 장르의 공연에 특화되어 음향적으로 적합한 공간이 되려면, 음향장비를 설치하기 이전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건축음향적인 부분도 예측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의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는 음향콘솔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르코예술극장은 음향콘솔이 아날로그장비인 반면 대학로예술극장은 디지털콘솔이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디지털장비가 아날로그장비보다 더 좋고, 나쁜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물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장비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발전되어 오긴 했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그 장점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콘솔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만들어놓은 여러 개의 셋팅값을 저장하여 쉽게 바로바로 불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아날로그 콘솔은 사용이 매우 직접적어서 즉각적으로 다양한 상황에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 02 Microphone(마이크로폰)

Microphone(마이크로폰)은 음향장비 중에서 일반인들에게 가장 보편화 되어 사용되고 있는 음향장비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요즘 많이 사용되어지는 헤드셋이나 휴대폰에도 마이크로폰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쉽게 줄여서 MIC(마이크)라 일컬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공연장의 음향 시스템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비이다. 공연장에서의 마이크 사용은 배우들이나 퍼포머들이 무대에서 관객에게 대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음원을 관객에게 전달할 때 배우의 목소리를 수음하거나 여러 다양한 음향적인 특성을 가진 악기들의 원음을 수음하는데 쓰인다.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작은 소리를 크게 확성하는 매개체를 마이크라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은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마이크의 주목적은 모든 종류의 소리를 완벽하게 똑같은 소리 신호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만, 실제로 그런 마이크는 전



유선마이크

문가들도 만나보기 힘들다. 실제로는 마이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수음의 능력이나 각각의 마이크만의 특유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마이크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비슷한 용도의 마이크들도 특성이 모두 다르다. 마이크의 사용 목적이 객석의 관객에게 전달되는 확성을 하느냐, 아니면 확성은 하지 않고 레코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음원을 그 음원과 가장 조화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를 선택하는 것은 음향 담당자의 몫이며, 다양한 마이크의 특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도 더불어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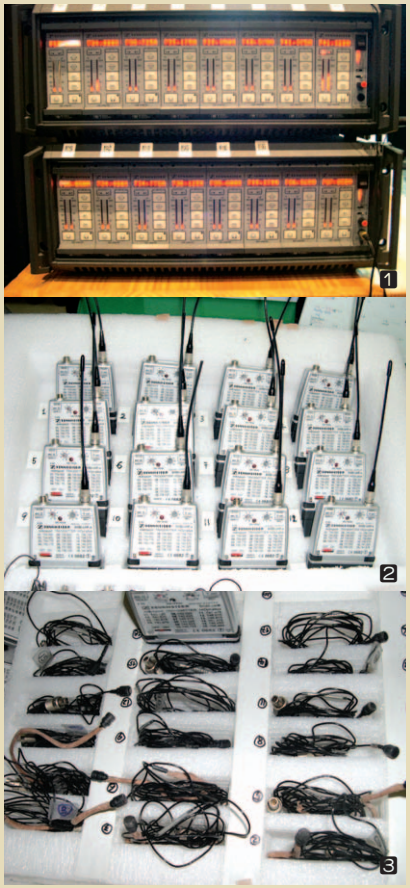
연극과 무용이 주로 공연되어지는 한국공연예술센터의 공연장은 무대 상부의 특정한 위치에서 전체적인 수음을 통해 배우의 대사를 좀 더 볼륨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서스펜션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다. 이 마이크로 수음된 소리를 로비나 분장실의 스피커로 공연 실황을 송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음악적인 요소가 많은 라이브연주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각각의 악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마이크를 선택 및 수음을 통해 원음을 그대로 내보내거나, 공연의 특성에 맞게 조절하여 스피커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한다.

무선마이크(wireless)는 말 그대로 마이크라인이 없는 마이크를 말하며,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 신호를 전송하는 기기이다. 무선마이크는 송신기에 마이크를 연결하여 배우의 대사나 노래 등을 수음하여, 수신기로 시그널을 보내게 되며 이를 확성하여 관객에게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핸드헬드 타입의 마이크와 배우의 얼굴에 부착되어지는 핀마이크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핀마이크 같은 경우는 연기를 하며 대사를 하는 배우들에게 두 손을 자유롭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무선마이크는 사용하기는 편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통신 주파수를 다루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파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공연예술센터가 위치한 대학로는 무선 주파수의 무장지대이다. 공연장 문만 열고 나가보면 주위가 온통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되어지는 마이크나 무전기에서 발생되는 무선주파수가 흘러넘치고 있다.

실제로 무선 수신기에 FM라디오 방송이 잡히는가 하면, 인접한 공간의 주파수가 섞여 들어오기도 한다. 공연 중 공연장 근처의 카페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노래하는 가수의 목소리가 뮤지컬 배우의 핀마이크를 타고 들어오는 웃지 못 할 해프닝도 있었다. 공중에 떠다니는 라디오 주파수를 음향 시스템에 연결된 케이블이 안테나 역할을 하면서 흘러들어오기도 하고, 무선마이크 리시버가 주파수를 인식해서 필요치 않은 시그널이 입력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장에서의 무선 시스템은 좀 더 퀄리티가 있고, 주파수 가변이 용이한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지만, 실제로 전파법에 따라 가변하며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그리 많지는 않다.

물론 안전한 주파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음향 담당자가 수시로 무선마이크의 간섭 주파수를 체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공연에 문제가 된 사례는 드물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주파수를 법으로 정하고 있어 무선기기 사용 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한다.



1 _ 무선마이크 리시버
2 _ 트랜스미터
3 _ 핀마이크

요즘 들어 음향시스템은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무선 네트워크 등을 이용한 시스템간의 통신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때로는 이를 통해 공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무선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거나 운용하는 사람에게 좀 더 간결하고 능률적인 편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핀마이크와 같은 무선기기를 사용함으로

써 배우들은 자유로워졌지만, 이러한 무선 시스템은 음향 담당자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숙제를 주고 있다.

<<< 03 공연장 통신기기

어떤 공연이든 무대, 조명, 음향의 호흡이 잘 맞아야 관객들에게 좋은 기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호흡을 위해서는 당연히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고, 바로 그 소통을 위해 공연장에서는 여러 가지 통신장비들과 모니터 기기들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대극장처럼 큰 극장에서 만약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기들이 없다면, 암전 후 무대 전환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조명이 켜질 수도 있고, 음악이 플레이될 수도 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공연진행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소통부재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연장 통신기기이다.

3-1 인터컴

어느 공연장이든 가장 기본적인 통신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인터컴이다. 한국공연예술센터에서도 인터컴은 가장 중요한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전기는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말을 할 수가 있고, 어느 한사람의 말이 끝날 때까지는 다른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한 것이 바로 인터컴이다. 인터컴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고 듣기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인터컴은 크게 유선인터컴과 무선인터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계조작실, 무대실, 조명실, 음향실 같이 움직임이 없는 고정된 공간에서는 유선 인터컴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무대 전환수, 조명 전환수, 음향 전환수 같이 움직임의 자유로움이 보장되어야 하는 스텝들은 무선인터컴을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무선인터컴 역시 무선마이크와 마찬가지로 전파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 유선인터컴에 비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전기보다는 인터컴이 공연진행을 위해 사용되기에 더 적합하다.



인터컴 착용

3-2 무전기

무전기는 인터컴보다 휴대가 용이하고 장거리 통신이 가능한 기기로서, 공연장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레스토랑, 경호원, 경찰 등 많은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선, 유선 인터컴



인터컴

하지만 무전기의 주파수 범위는 한계가 있는데다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같은 제품,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너무 많아 혼선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안정성의 문제로 인해 공연을 준비하거나 철수할 때에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공연진행시 사용하기엔 부적합하다.

3-3 영상 모니터 시스템

귀로 듣고 공연을 진행하는 방법에 인터컴과 무전기가 있다면, 눈으로 확인하여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영상 모니터 기기들이다. 한국공연예술센터의 모든 극장에는 무대 전체를 모니터 할 수 있는 일반 카메라와 어두워졌을 때 무대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암전이 된 후 배우가 자리를 잡는 동안 음악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나 무대 전환이 이루어지는 동안, 관객들은 무대를 전혀 볼 수 없지만 음향 컨트롤 부스에서는 적외선 카메라로 무대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서 적절한 때에 음향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이는 조명부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배우가 암전상태에서 다음 장면을 위해 준비를 마친 후 적절한 때에 조명을 켤 수 있는 것은 적외선 카메라로 무대 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니터 시스템이 있기에 공연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진순 선집

『芝村 李眞淳 선집』전 3권, 1,600여 페이지에 수록된 연출가 李眞淳(1916-1984)의 모든 것

연극계 81인의 증언

연출작 71편에 대한 공연 기록

한국 근대극 연출 3세대 이해랑, 이원경과 함께 3대 거목으로 불린 지촌 이진순(李眞淳 · 1916~1984)의 글을 모은 『지촌 이진순 선집』(전 3권)이 발간됐다. 전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초대 『한국연극』 발행인, 극단 광장 대표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 이진순은 평생 200여 편의 작품을 연출한 연출가로 유명하다. 그는 연극에서 악극, 창극, 오페라, 무용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한 예술가로 알려져 있다. 허나 사후 기록문화가 미비한 현실로 인해 그가 남긴 많은 글들이 망실됐지만, 후학들이 뜻을 모아 자료를 찾고 수집해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평생 남긴 많은 저술과 기록을 하나로 모았다는 점에서 이번 선집은 연극학적으로도, 후학들에게도 큰 의미로 남을 것이다.

특히 연극연출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그의 연출노트는 후학들에게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뿐더러, 또한 현재 유명세를 구가하고 있는 수많은 후학들의 회고는 그의 인생을 조망하고, 많은 연극인들의 지표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극평론가 유인경은 "미래에 집필될 연극사



李眞淳

언한 81명의 연극-무대 예술인이 등장한다. 특히 지촌의 꼼꼼한 연출대본은 많은 후학들에게 존경과 경외의 표적이 되어왔다. 그의 연출대본은 홀수 페이지에는 극본이, 그리고 무대도면을 프린트하여 붙인 짝수페이지에는 동작선을 세세히 적어 넣은 것이다. 공연이 끝나고 차례차례 정리하여 놓은 이 연출대본이 2011년 4월, 헌정공연과 함께 새로이 출간될 예정이다.

이 선집의 발간은 많은 연극연구자들과 연출가, 연극행정가, 연극교육자들이 이진순의 연극세계 전모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발표 시기상 1947년부터 1983년까지 망라한 이진순 선집은 연극 관련 과목이나 공연예술사 분야를 다루는 다양한 강좌를 통해 활용될 수도 있다. 나아가 고인의 서거 25년이 지나버린 현재, 자료의 망실이 우려되는 이진순의 많은 글들이 보존 계승된다면,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들이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요컨대, '지촌 이진순 선집 발간' 은 한국의 근 · 현대 공연예술계에 큰 족적을 남긴 연극인 한 사람의 위상을 규명할 수 있는 1차 자료가 될 뿐 아니라, 미래에 집필될 연극사 기술을 위해서, 그리고 연출과 연극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이 요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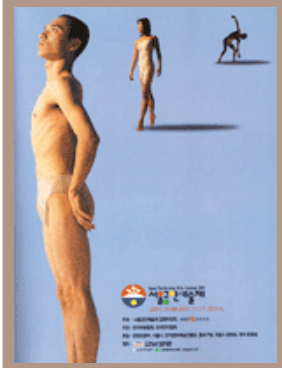
지촌 이진순 선집 발간위원회(위원장 백성희)는 지난 10월,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로비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한편 사후 30여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직도 그를 기억하고 기리는 후학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현대사회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스승과 제자의 바람직한 모습에 큰 귀감이 된다는 것이 연극인들의 중론이다.

기술을 위해서, 그리고 연출과 연극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이 요청된다"며 이번 선집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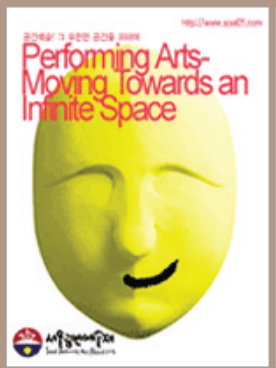
책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우선 '지촌 이진순 선집' 에는 이진순이 발표하고 집필한 문헌이 집대성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이진순은 공연 프로그램의 연출노트뿐 아니라 여러 잡지와 신문 등에 상당수의 문건을 남겼다. 『한국연극사(1945-1970)』와 『현대연극사(국립극장을 중심으로)』를 포함하여 연출론, 시평, 수필에 이르기까지 문재(文才)를 발휘했다.

『이진순 선집』에는 그의 연출 기법 혹은 연출 방식에 관해 증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1_ 2001 제1회 2001. 10.4–11.14 • 6개국, 123작품 • 해외 6작품, 국내 118작품

02_ 2002 제2회 2002. 5.4– 6.9 • 6개국, 124작품 • 해외 5작품, 국내 119작품 • "열정, 그리고 무한한 자유의 공간을 위해"

03_ 2003 제3회 2003. 10. 4–11.2 • 8개국, 57작품 • 해외 8작품, 국내 49작품 • "공연예술! 그 무한한 가능성을 위하여"

04_ 2004 제4회 2004. 10. 8–10.23 • 11개국, 23작품 • 해외 10작품, 국내 13작품 • "장르간, 지역간의 창의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상상력을 확장하는 공연예술제"

05_ 2005 제5회 2005. 9. 23–10.16 • 12개국, 22작품 • 해외 9작품, 국내 13작품 • "예술개혁"

06_ 2006 제6회 2006.10. 7–10.29 • 14개국, 26작품 • 해외14 작품, 국내 12작품 • "예술의 기본–몸,맘,땀,꿈,숨"

07_ 2007 제7회 2007. 9.20–10.14 • 16개국, 39작품 • 해외 17작품, 국내 22작품 • "예술의 기본–도발, 불온을 꿈꾸다"

08_ 2008 제8회 2008. 9.18–10.19 • 13개국, 38작품 • 해외 11작품, 국내 27작품 • "예술의 기본–충돌, 조화, SPAF is SPArk"

09_ 2009 제9회 2009.10.13–11.21 • 12개국, 40작품 • 해외 15작품, 국내 25작품 • "Analog & Digilog"

10_ 2010 제10회 2010.10. 2–11.14 • 8개국, 28작품 • 해외 10작품, 국내 18작품 • "SPAF strikes Sparks"

and 2011 SPAF



2011 SPAF 국내 작품 공모

Annoncement for SPAF 2011 programs



www.spaf.or.kr

2011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 참가할 국내 공연예술작품을 공모합니다.

지난 10년간 쌓아온 관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올해 11회를 맞이하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갈 야심만만한 국내 작품을 기다립니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한국공연예술센터를 기반으로 더욱 안정된 프로그램 연계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10월 한 달간 대학로에서 펼쳐질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함께 할 국내 공연예술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부문** : 연극, 무용, 복합장르

2 **공모 기간** : 1월 31일(월) ~ 2월 28일(월) 6:00pm

3 **제출자료** : 공모 신청서, 작품 동영상 DVD, 대본(연극) 각 4부씩

☞ 공모 신청서 : www.spaf.or.kr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작품 동영상 DVD : 초연인 경우 단체의 최근 공연 동영상 혹은 대표작

4 **접수방법**

1) 우편접수

(110-809)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67 한국공연예술센터 2층 전략사업부 서울국제공연예술제

☞ "2011서울국제공연예술제 작품공모" 명시

☞ 등기우편 발송,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 **방문접수**

방문가능 시간 : 월~금요일 9:00am ~ 6:00pm (공휴일 제외)

☞ 퀵 서비스로 접수할 수 없음.

6 **심사 과정 및 발표**

시기	진행 과정	세부 일정
3월 2주	1차 심사	서류 심사
3월 3주	2차 심사	인터뷰
3월 4주(예정)	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7 **문의** : 한국공연예술센터 서울국제공연예술제

Tel. 02-3668-0100

※ 2011 SPAF 주요 일정

- 사이트 오픈- 6월 셋째 주
- 조기예매 오픈- 7월 첫째 주

at www.spaf.or.kr

Hanguk Performing Arts Center

Waiting for Arts Seed

예술의 꽃 피워줄 한팩씨를 기다립니다

예술 나눔을 위한 당신의 아름다운 선택

일본의 버려진 섬이었던 나오시마는 베네세 그룹의 예술 기부로 연간 50만명이 찾는 '예술의 낙원'으로 변신했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은 어느 독지가 부부가 거액의 후원금을 기부한 덕에 매일 200명에게 100~300달러짜리 좌석을 단돈 20달러로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기적의 오케스트라 엘 시스테마 역시 베네주엘라 국가와 기업들의 후원이 없었다면 한 개인의 이상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국가와 기업, 개인이 힘을 모아 문화예술을 꽃피울 때 더욱 풍요로운 삶이 그려집니다.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책 《생각의 탄생》 저자인 미셸 루트번스타인 교수는 "직원과 지역의 예술활동을 후원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낸다"



한국공연예술센터 후원회 소액기부

구분	기간	혜택
10만원	1년	한팩 제작공연 R석 티켓 증정 (연1회, 2매) 한팩 기획공연 예매 시 20% 할인제공 한팩 대관공연 예매 시 10%~20% 할인제공 한팩 후원회 행사 초대 (연1회) 한팩 월간지 HanPAC View 우편발송
5만원		한팩 제작공연 S석 티켓 증정 (연1회, 2매) 한팩 기획공연 예매 시 20% 할인제공 한팩 대관공연 예매 시 10%~20% 할인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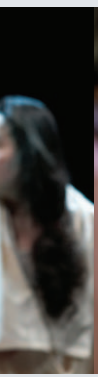


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굳이 수익을 논하지 않더라도, 예술이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소통의 창구로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촉매제입니다.

한국공연예술센터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공연예술을 통한 소통과 나눔입니다. 그동안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은 연극과 무용 분야 공연예술의 산실로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연예술의 발전을 추구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열린 극장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한국공연예술센터 후원회를 시작합니다.

한분 한분의 작은 손길일지라도 함께 모이면 커다란 힘이 되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연예술의 나무가 탐스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후원과 지원 부탁드리며, 한국공연예술센터는 그 아름다운 씨앗이 되어주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EVENT!

2011년 2월 28일까지의 신청서 중 '후원 추천인'으로 등록된 기부자들께는 공연티켓 50% 할인권(1인 2매)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 후원 신청 안내 |

하나. 한팩 제작공연 시 매표소에서 신청서 작성 (2011년 2월 28일까지)

둘. www.hanpac.or.kr
('한팩' – '조직과 기구' – '후원회' 코너에서 서식 다운로드)
이메일_ artseed@hanpac.or.kr
전화_ 02-3668-0034
팩스_ 02-744-4008

* 보내 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한국공연예술센터의 발전에 사용되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공제 한도_개인 소득의 20%, 법인 소득의 5%
한도 내에서 경비 인정)

큰 사랑 감사드립니다
Expressions of Gratitude

관객 여러분 그리고 공연예술가 여러분의 큰 사랑으로
한국공연예술센터 공연이 한국의 공연예술 성과를 더욱 빛낼 수 있었습니다.

2011년 신묘년이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공연예술과 한국공연예술센터 무대에 올라간 작품을 사랑해 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감동과 행복이 깃드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은 한국공연예술센터가 한국 공연예술의 중심으로서 최상의 관객서비스를 이루고자 하는 미션을 품고 출범한 첫 해입니다. 아울러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한국 공연예술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연예술단체와 한국공연예술센터가 협력하여 올린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통하여, 굵직한 문제작 및 주목받을만한 차세대예술가들이 배출되는 성과를 가졌습니다.
이 모두가 관객 여러분의 사랑과 공연예술가들의 땀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열매임을 믿습니다.

다음은 2010년 한 해 동안 권위 있는 예술상 수상 및 베스트작품 선정을 통해
한국의 공연예술을 더욱 빛낸 한국공연예술센터에서 공연된 작품의 수상 내용입니다.

2010년 연극상 수상 작품

▷ 극단 동 **〈비밀경찰〉** : 2010년 1월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공연
-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선정
- 한국연극지 올해의 연극 베스트 7 초연부문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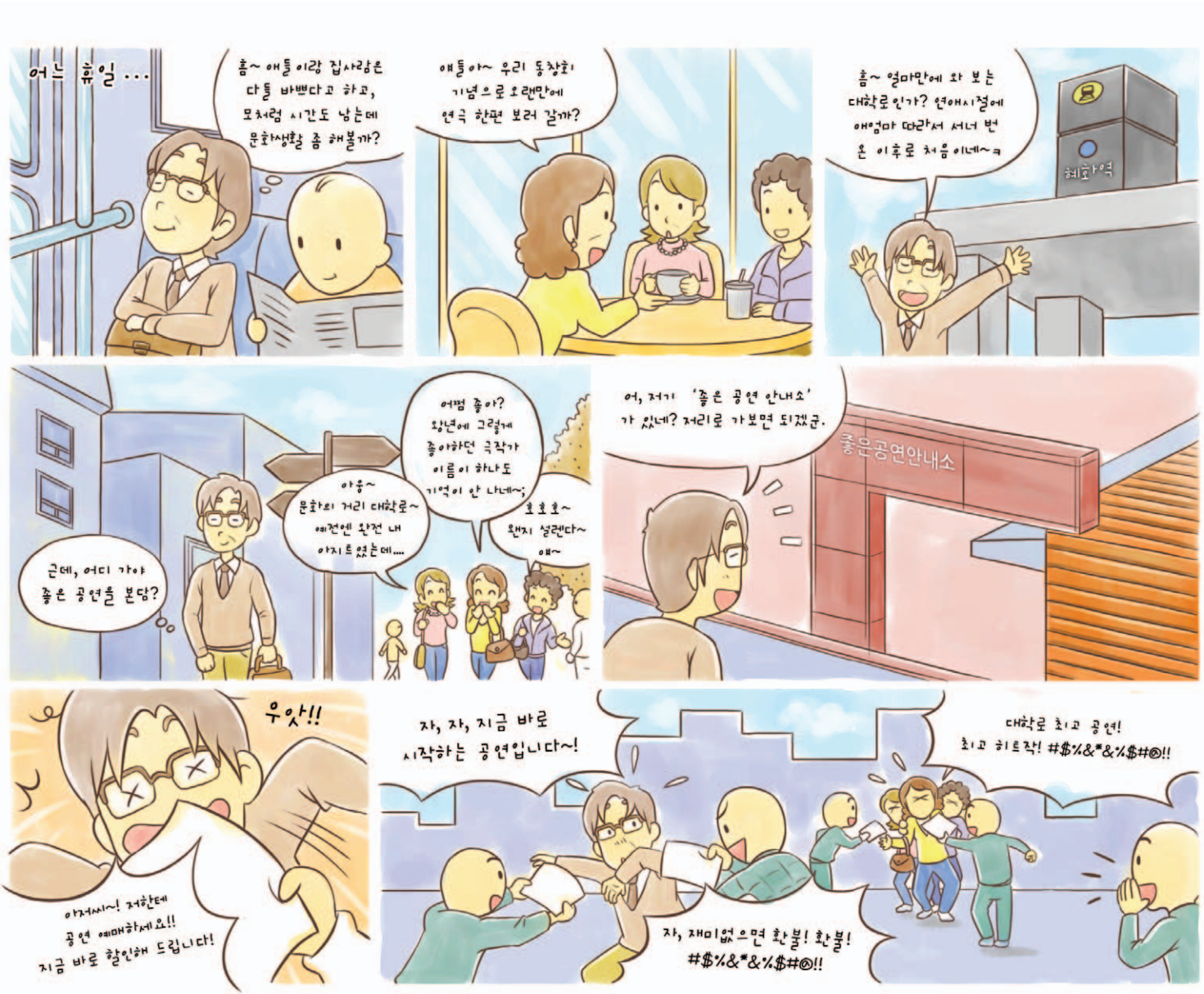
▷ 한국공연예술센터 제작 **〈에이미〉** : 2010년 2월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공연
- 한국연극지 올해의 연극 베스트 7 초연부문 선정

▷극단 산수유 **〈기묘여행〉** : 2010년 4월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공연
• 동아연극상 신인 연출상 수상 : 류주연 연출
▷극단 신시 **〈대학살의 신〉** : 2010년 4월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공연
• 대한민국 연극대상 최고 작품상 수상
• 동아연극상 연기상 수상 : 서주희 배우
▷극단 놀땅 **〈1동 28번지 차숙이네〉** : 2010년 7월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공연
• 동아연극상 작품상 수상 : 최진아 연출
• 한국연극지 올해의 연극 베스트 7 초연부문 선정
▷한국공연예술센터(SPAF) 주최 러시아 푸쉬킨 드라마시어터 **〈폭풍〉** : 2010년 10월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공연
• 한국연극지 올해의 연극 베스트 7 해외우수공연부문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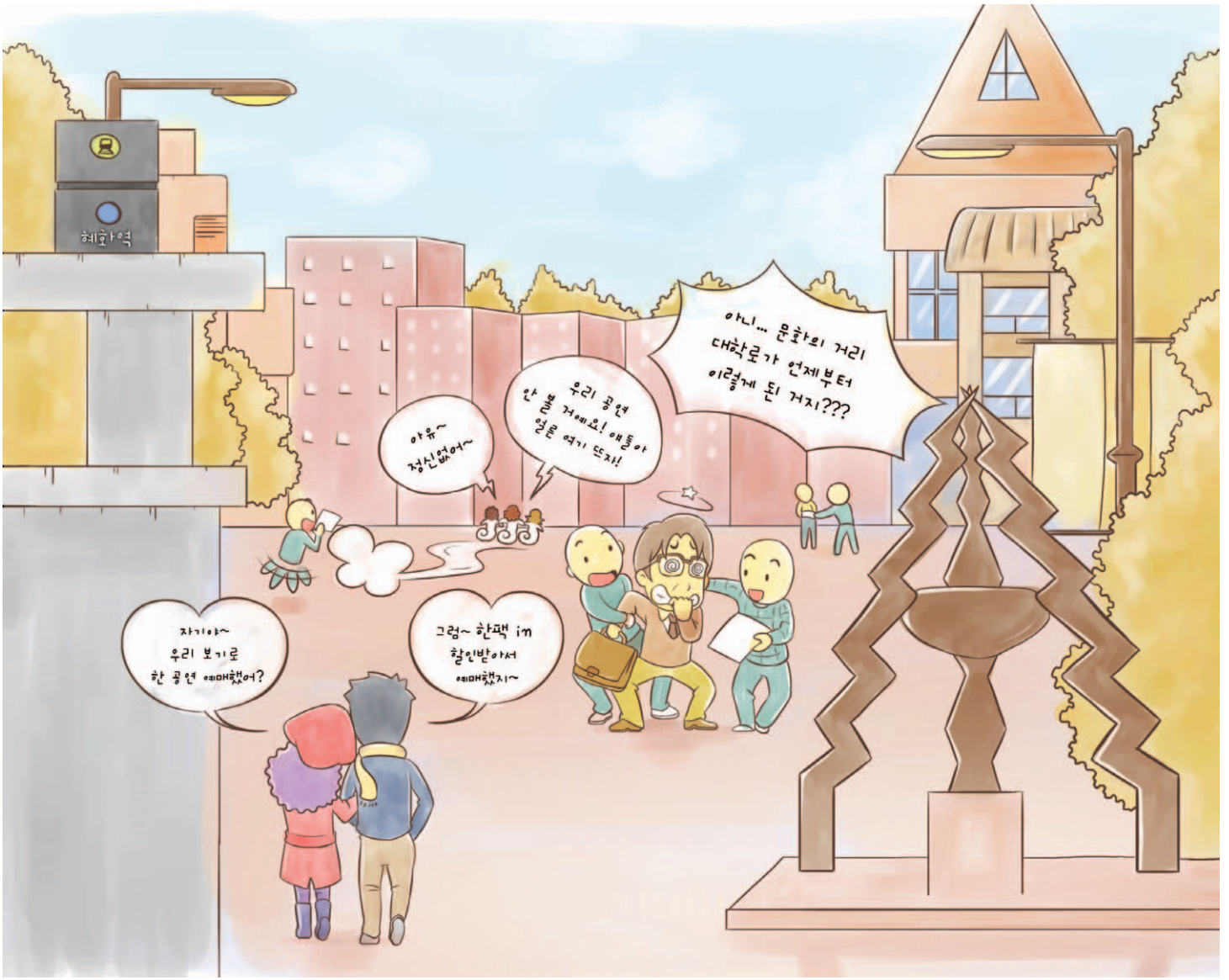
2010년 무용상 수상 작품

▷전미숙 무용단 전미숙 안무 **〈아모레 아모레 미오〉** : 2010년 7월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공연
• 2010 한국 춤비평가상 베스트 6 선정
▷YJK댄스프로젝트 김윤정 안무 **〈울프-나도 하나의 이야기〉** : 2010년 9월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공연
• 2010 한국 춤비평가상 베스트 6 선정
▷발레블랑 허용순 안무 **〈시간의 속삭임〉** : 2010년 11월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공연
• 2010 한국 춤비평가상 베스트 6 선정

이밖에도 다양한 언론사에서도 위의 공연들을 2010년 최고의 수작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시한번 지난 한 해 동안 한국공연예술센터 무대에 땀을 뿌려주신 여러 예술가 및 예술단체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예술인들의 열정에 힘입어 2011년에도 한국공연예술센터는 이 시대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공연예술가의 체계적 육성, 새개념 공연예술 작품 육성, 주제별 기획 시스템 운영, 지속가능한 공연 활성화,
국내 · 외 공공기관과의 교류 및 파트너십 구축 등을 차근차근 해나갈 예정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언제나 웃음과 감동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휴일...
흠~ 애들이랑 집사람은 다들 바쁘다고 하고, 모처럼 시간도 남는데 문화생활 좀 해볼까?
애들아~ 우리 동창회 기념으로 오랜만에 연극 한편 보러 갈까?
흠~ 얼마만에 와 보는 대학로인가? 연애시절에 애엄마 따라서 서너 번 온 이후로 처음이네~ㅋ
혜화역
근데, 어디 가야 좋은 공연을 본담?
아휴~ 문화의 거리 대학로~ 예전엔 완전 내 아지트였는데....
어쩜 좋아? 황년에 그렇게 좋아하던 극작가 이름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호호호~ 왠지 설렌다~ 얘~
어, 저기 '좋은 공연 안내소'가 있네? 저리로 가보면 되겠군.
좋은공연안내소
우앗!!
아저씨~! 저한테 공연 예매하세요!! 지금 바로 할인해 드립니다!
자, 자, 지금 바로 시작하는 공연입니다~!
자, 재미없으면 환불! 환불! #$%&*&%$#@!!
대학로 최고 공연! 최고 히트작! #$%&*&%$#@!!

한팩과 함께 천천히 사는 사람들





극단 드림플레이

장석조네 사람들

2011.3.17(목) ~ 3.27(일)

평일 8시 토 3시,7시 일4시(월 공연있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관 람 료 R석 3만원 / S석 2만원
소요시간 150분 (인터미션 10분 포함)
관람연령 14세 이상
공연문의 02-745-4566



극단 백수광부

봄날

창단 15주년 기념 작 – 두 번째 작품

2011.3.31(목) ~ 4.17(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작 이강백
연출 이성열
출연 오현경 이대연 장성익 외
문의 02-814-1678

www.iqair.co.kr

Value of Air

IQAir 공기청정기는 당신의 가치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IQAir®



Value of IQAir

신종플루/SARS 아이큐에어는 공기청정기로는 유일하게 SARS 병동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 홍콩병원관리국이 선택한 제품이며, 전세계 60개국에서 널리 사용중입니다.

미세먼지와 수명 아이큐에어를 사용하면 사람의 수명까지 단축시키는 미세먼지 수준을 3~10배까지 개선할 수 있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천식/알레르기 비염 아이큐에어의 고성능 필터 시스템이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증상의 완화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아, AK백화점, 현대IPARK, 대백플라자에서 IQAir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수입판매 | (주)컨텍 02-588-4520

Swiss Made

산이 되고 싶은 사람들

YOUNGONE
OUTDOOR

다음은 영원이다

2010 다운 자켓 컬렉션

M'S EXTREME DOWN JACKET

뛰어난 투습 · 강량 · 보온성, 기후 적응력으로 극한의 추위와 악천후에서도
따뜻하고 안전한 산행을 책임지는 퍼펙스 쉘드 전문가형 다운 자켓

COLOR : YOD00A61 ₩490,000





M'S MOUNTAIN DOWN JACKET
YOD00A59 ₩380,000
COLOR :



M'S NEW BANTAM DOWN JACKET
YOD00A55 ₩270,000
COLOR :



M'S MINIMUM DOWN JACKET
YOD00A51 ₩240,000
COLOR :



M'S HOODED DOWN SWEATER
YOD00A53 ₩270,000
COLOR :

365 HAPPY PROGRAM

EVENT 1 영원카드로 신상품 구입 시,
최대 20%할인 + 2%적립

EVENT 2 제품 구매 시, 금액별 사은품을 드립니다

10만원 구매시	20만원 구매시	30만원 구매시
넥게이터	플리스 장갑	패딩 장갑

EVENT 3 스틱 1+1 해피 찬스!
지금, 영원 아웃도어 매장에서 월슨스틱을
구매하시면 42,000원 상당의
월슨스틱을 하나 더 드립니다.

EVENT 4 제주 '영원 하루올레' 특별 신청 (매주 화, 목)
영원 아웃도어 매장을 방문하여 신청 시,
149,000원에 제주도 올레길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왕복항공권, 식사, 가이드비 포함) ※더 자세한 사항은 각 매장에 문의

세계적인 아웃도어를 현명하게 모두 즐긴다!

스마트 아웃도어 멀티샵 – 영원 아웃도어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똑똑하게 쇼핑을 즐기는 곳!
쾌적한 환경, 넓은 매장, 기분 좋은 가격이 함께 합니다
이제, 스마트 아웃도어 멀티샵 영원 아웃도어에서
현명한 쇼핑을 만나세요

- YOUNGONE 세계적인 최첨단 테크놀로지 아웃도어 – 영원
- AIGLE 158년 전통의 프랑스 NO.1 패션 아웃도어 – 에이글
- Goldwin 스키 애호가들이 인정한 세계적 명품 스키웨어 – 골드윈
- 100% 메리노울 소재의 미국 NO.1 아웃도어 브랜드 – 스마트울
- TECHNICA 이태리 NO.1 아웃도어 슈즈브랜드 – 테크니카
- THE NORTH FACE 세계 유명 탐험가들이 인정한 아웃도어 브랜드 – 노스페이스



전국 주요도시 **영원 아웃도어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 **대리점OPEN문의** : 이창용부장 **T. 031)737-1720** cylee@youngone.co.kr | 영원 아웃도어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품격 아웃도어샵이며, **공무원복지카드 지정 사용처**입니다. **www.youngone.com**

[신규 OPEN 매장] · 버티고개점 02)2235-8611 · 태평백화점 02)536-2559 · 경산점 053)811-8369 · 계룡점 041)736-8848 · 삼척점 033)575-0039 · 대전자루점 042)514-6700 · 아차산점 02)777-7767 · 대학로점 02)744-8611 · 시흥점 031)313-8765 **[신규 OPEN 예정 매장]** · 경주점 · 서산점 · 제주점 **[확장 OPEN 매장]** · 분당점 031)717-8848 · 강서점 02)2659-3484 **[확장 이전 매장]** · 강남점 02)542-8660 **[영원 아웃도어 멀티샵]** · 본점 02)392-9143~5 · 강서점 02)2659-3484 · 구로점 02)854-7080 · 마천점 02)401-3931 · 상봉점 02)494-5517 · 수유점 02)903-8611 · 송파점 02)402-3809 · 성남센터점 031)748-1011 · 검단산점 031)795-8834 · 금광점 031)737-1799 · 남한산성점 031)734-6780 · 분당점 031)717-8848 · 평택점 031)666-6606 · 인천점 032)425-8964 · 서인천점 032)564-8846 · 부평점 032)525-6577 · 천안운동장점 041)561-3964 · 청원점 043)285-6782 · 내덕점 043)255-1580 · 청주점 043)276-8853 · 덕천점 051)334-8959 · 반여점 051)522-7077 · 동대구점 053)745-8848 · 구미점 054)451-8611 · 울진점 054)781-8848 · 진주점 055)763-7474 · 창원점 055)261-8848 · 화왕산점 055)533-0985 · 동광양점 061)794-0884 · 정읍점 063)532-7676 · 전주점 063)236-8848 · 익산점 063)836-3954 · 부천모드와 032)614-1860 **[영원 전문점]** · 바우하우스 02)2115-1252 · 불광점 02)383-5371 · 홈플러스 시흥점 02)892-0466 · 세이브존 노원점 02)978-4785 · 세이브존 성남점 031)730-2277 · 안양점 031)425-2454 · 세이브존 화정점 031)938-3323 · 만수점 032)461-6248 · 동해점 033)532-5008 · 원주점 033)766-0158 · 태백점 033)554-0135 · 춘천점 033)252-7858 · 세이브존 대전점 042)479-9135 · 충주점 043)852-5956 · 대전유천점 042)535-8787 · 울산점 052)274-9355 · 수성점 053)213-8848 · 동아백화점 강북점 053)320-7893 · 동아백화점 수성점 053)784-1720 · 김해점 055)336-8118 · 마산대우백화점 055)240-6470 · 디큐브거제백화점 055)680-0566 · 광주점 062)225-5400 · NC백화점 순천점 061)720-5480



한국공연예술센터
Hanguk Performing Arts Center

http://www.hanpac.or.kr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67번지
T. 02.3668.0007 E. webmaster@hanpac.or.kr